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4 Winter Vol.39



In Schaeffler

page 06 세플러가 만난 사람
NC다이노스 김진성



For Life

page 32 힐링 가족 캠핑
도심 한가운데서 즐기는 겨울 캠핑



To Communicate

page 47 따뜻한 시선
'함께하는 사랑밭'과 만드는 Happy Cooking





Cover Caption

이번 '세플러를 찾아서'에는 서울사무소 영업직 직원들이 남부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소비자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주는 물류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행일 2015년 1월 15일(통권 제39호)
 발행인 김재현
 편집인 이범진
 발행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Tel. 02.311.3019
 기획·디자인 (주)디자인페이지
 Tel. 02.324.9422
 출력 허우두 그래픽
 인쇄 솔텍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PAGE 06 : 세플러가 만난 사람
 프로야구 NC다이노스 김진성 선수와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엔지니어링
 하병훈 연구원과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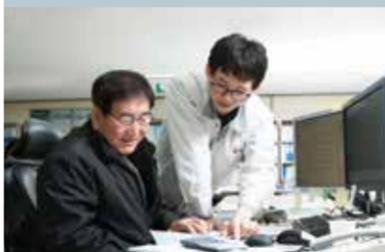
PAGE 10 : 세플러를 찾아서
 세플러 영업직 직원들의 남부물류센터 탐방기



PAGE 16 : 체험 1박 2일
 안산공장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숯가마 찜질 체험



PAGE 20 : 세플러 애정촌
 연구소 제품기술팀 김수연 연구원,
 창원공장 설비보전 문혜영 사원



PAGE 24 : 부모님, 감사합니다
 전주공장 차공구서비스 오원균 사원과
 그의 부모님

Cover Story

04 신년사
 세플러코리아 대표이사 김재현

In Schaeffler

- 06 세플러가 만난 사람
 마운드를 지배하는 작은 공룡
 NC다이노스 김진성
- 10 세플러를 찾아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세플러코리아 물류의 심장
 남부물류센터
- 14 원더풀 베어링
 나노 기술을 응용한 구름 베어링용
 그리스 개발
- 16 체험 1박 2일
 후끈후끈~ 겨울 추위 잊게 하는 열기 속으로
 안산공장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 20 세플러 애정촌
 추위를 잊은 채 따뜻한 마음 속
 길목을 거닐다
- 24 부모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표현해야 아는 것도 있다
- 26 세플러인 탐구생활
 자녀교육,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28 Happy Birthday
 내 피부는 소중한니까요~
 촉촉한 피부로 다시 태어난 다섯 남자

세플러+원

2014 WINTER Vol.39

세플러인의
 꿈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PAGE 32 : 힐링 가족 캠핑
 안산공장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김인구 사원



PAGE 36 : 프로에게 배우는 열정
 안산공장 엔진 부품 세그먼트
 장성욱 사원의 케이크 만들기



PAGE 38 : 모두가 궁금한 상식사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일상생활 속 상식사전



PAGE 40 :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여행수기 공모전 수상작 2편



PAGE 47 : 따뜻한 시선
 아이들과 함께 달콤한 케이크·쿠키 만들기

For Life

- 32 힐링 가족 캠핑
 도심 한가운데서 즐기는 겨울 캠핑
- 36 프로에게 배우는 열정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아빠표 케이크
- 38 모두가 궁금한 상식사전
 고정관념에 숨겨진 궁금증을 벗겨보자
- 40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01
 두유럽, 유럽? (Do you love Europe?)
- 42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02
 신선이 살던 설악산 비선대
- 44 100세 시대 나는 이렇게 준비한다
 노후 준비, 연금저축으로 스마트하게!

To Communicate

- 47 따뜻한 시선
 '함께하는 사랑밭'과 만드는
 Happy Cooking
- 50 새로운 시선
 '완생(完生)'을 꿈꾸는
 신입사원들을 소개합니다.
- 53 Schaeffler Focus
- 55 Schaeffler News
- 59 Schaeffler Hotline



올마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 아침을 맞으며, 미래란 언제 시작되는 것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시작이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시작하면 그 순간이 바로 출발점이며, 산을 옮기려는 사람도 작은 돌 하나부터 날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현재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매 순간 미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이라는 미래를 향해, 세플러코리아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야겠습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저는 2015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고자 합니다. 어떤 기업이 혁신을 통해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뛰어난 실적을 거두었을 때 '퀀텀 점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퀀텀 점프는 그냥 기다린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도약할 발판을 만들어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다가 기회를 맞이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며 약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룹 차원에서 강조해 온 One Schaeffler 프로그램과 MOVE, Compliance 정책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훌륭한 발판입니다. 그룹의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스템 수용에 따른 변화가 단기간에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중단해 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열을 가하다가 99도에서 멈추어 버리면 물은 끓지 않습니다. 즉, 99도에서 100도 사이에 존재하는 퀀텀 점프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룹 내에서 우리의 위치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1. 획기적인 품질 개선
품질은 경쟁력이 아닙니다. 시장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제조업체의 기본이자 원칙은 품질입니다. 품질 문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기로 약속한 일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실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생산 공정에서 도면, 작업지시서, 검사기준 항목을 빠짐없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칙 준수는 생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및 행정 업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생산성 향상
생산성 향상으로 인건비 상승을 커버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생산성 향상은 우리를 지금까지 존속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부서는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향상해야 합니다. 특히 생산부문은 치밀한 생산 계획, 안정적인 자재 수급, 철저한 설비 관리를 통해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통한 인건비 절감, 불필요한 재고 감축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두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3. 변화를 받아 들이는 자세
기존 제품군에만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변화에 대한 생각과 의지를 새로이 해야 합니다.

그간 세플러코리아는 시장에서 우월한 위치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으로 우리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과에만 연연하여 조직 곳곳에 만연한 타성과 관성적인 업무방식은 이번 기회를 통해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세플러코리아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더없이 정겨운 계절입니다. 이 겨울, 또 한 해를 서로에게 마음을 기대고 소통하면서 따뜻하게 이겨내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1월 2일
세플러코리아 대표이사 김재헌

In Schaeffler

이 한장의 엽서

● 전주공장 설비보전 김봉철 매니저

우리를 대부분은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비슷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죠?”, “물론, 나도 바쁩니다!” 그러면서도 한 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가져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모두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무엇인가를 잊어버린 채 마냥 달리고만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모두가 같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꿈과 목표를 잊고 살고 있으며, 그로인해 우리 자신의 ‘비전(Vision)’까지 상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전이란 단어는 ‘미래에 대한 구상, 미래상’,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보는 행위 또는 능력, 꿰뚫어 보는 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비전과 목표를 구분하자면, 목표는 달성하면 끝이 나지만 비전은 미래의 행동을 위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즉, 비전은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침을 제공하는 영속적인 것입니다.

그럼 비전은 왜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마음먹은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올바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전을 수립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전은 단 한 번의 정립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세운 꿈을 성취하기 이전에 새롭고 더 큰 꿈을 세워야 합니다. 서로 각자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든 다를 게 없습니다. 현재 서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더 나은 직장인이, 더 나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마운드를 지배하는 작은 공룡, 김진성

프로야구 NC다이노스 김진성 선수와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엔지니어링 하병훈 연구원과의 만남



우리나라 프로야구 9개 구단 중 막내 구단인 NC다이노스는 창원을 연고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막내구단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여 3위라는 성적을 올렸다. 이들의 파격적인 승리의 행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언제나 당당한 모습으로 마운드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를 지켜내는 NC다이노스의 수호신 김진성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마산야구장에서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해 11월, 불과 한 달여 전까지 뜨거운 함성이 넘쳐 울렸던 마산야구장을 다시 찾았다. 야구팬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선수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설렘 이상의 벅찬 감정을 가지게 만든다. 비시즌 기간을 이용해 창원을 연고로 하는 NC다이노스 구단의 선수와 창원의 터줏대감을 자처하는 세플러코리아 사주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이번 만남에는 세플러코리아를 대표해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좋아했고 현재 NC다이노스의 열혈팬인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엔지니어링 하병훈 연구원이 함께 했다.

시즌 경기가 모두 끝나 텅 비어있을 것만 같은 야구장은 여전히 마무리 훈련을 위해 구

슬땀을 흘리는 NC다이노스 선수들로 가득했다. NC다이노스의 수장으로 감독을 맡고 있는 김경문 감독의 지휘 아래 연신 펄고 배팅을 받으며 수비 연습을 하고 있는 내외야 선수들과 연습용 볼펜에서 카트 가죽 공을 쌓아 놓고 던지는 투수들까지. 거친 숨을 내쉬며 비 오듯 땀을 흘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프로 운동선수로서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들 중에서도 열정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선수가 바로 팬과의 만남의 자리를 함께할 NC다이노스의 마무리 투수 김진성 선수였다.

지금은 훈련 중, 조심스러운 프로 10년차 선수의 인터뷰

정규 시즌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구단의 스케줄에 맞춰 마무리 훈련을 진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선수와의 인터뷰는 조심스러웠다. 야구는 단체 운동이기에 훈련 기간 중에 개별 인터뷰 시간을 내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훈련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김경문 감독에게 예외란 없다는 걸 잘 알기에 구단의 허락에도 불구하고 김진성 선수는 더욱 조심스러워 했다.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그라운드 뒤로 하고 휴식 시간을 이용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에서 김진성 선수와 하병훈 연구원과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실제로 만난 김진성 선수는 186cm, 92kg의 소유자였다. 바쁜 일정 속에서 잠시 틈을 내어 진행되는 인터뷰 임에도 환한 미소로 하병훈 연구원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무뚝뚝한 표정과 달리 조근조근한 어투로 팬을 맞이하는 그는 사실 창원에 전혀 연고가 없는 경기도 성남 출신이다. 처음 창원에 왔을 때는 이는 사람이 없



“NC다이노스 김진성입니다. 먼저 많은 팬 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2014 시즌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팬 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팀의 목표였던 4강을 이루었고 저도 조금이나마 팀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시즌에는 올해의 경험을 발판삼아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야구장에서 등을 맞대고 앉은 두 사람은 선수와 팬으로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다.

Interview +one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엔지니어링
하병훈 연구원

창원에서 태어나 대학교를 가기전 까지 죽창원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야구에 관심이 많아 원래는 롯데 자이언츠 팬이었지만, 고향 창원을 연고지로 한 NC다이노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김경문 감독님이 감독으로 오신다고 하여 조금의 고민도 없이 NC 팬이 되었습니다. 15년 시즌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는 김진성 선수를 보며 NC의 팬으로서 정말 들뜨했습니다. 신생구단이 3위라는 성적을 낸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NC 끝판 대장 김진성 선수의 15년 시즌 최고의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김진성 선수는 NC다이노스의 열혈팬인 하병훈 연구원이 내민 유니폼에 정성스레 사인을 했다.

어 조금 힘들었지만 2년차가 넘어가는 지금은 전혀 불편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 야구계에서도 열혈 팬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마산아재’로 통칭 되는 창원 팬들에 대해서도 부담감보다는 좋은 기억이 많다고 한다. “우리 다이노스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때도 격려와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는 모습에 언제나 감동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열성적인 팬 분들 앞에서 공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에 언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 덕분에 요즘은 거리를 지날 때에도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행동에도 각별히 신경을 쓴다. 이제는 지역 팬심을 넘어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 하고 있는 김진성 선수는 사실 얼굴이 알려지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올해로 프로 데뷔 10년차의 중견 선수다. 이러한 그에게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자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그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무명의 선수에 불과했다. 지난 2004년 성남서고를 졸업한 김진성은 SK구단에 2차 6번으로 지명 되면서 프로 유니폼을 입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치열한 내부 경쟁 속에서 김진성은 단 한 차례도 1군에 부름을 받지 못했다. 업친 데 댔친 격으로 고등학교 때 수술한 팔꿈치 부상이 재발하면서 2006년 구단으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는다. 이어 군복무를 위해 지원한 경찰청 입단 테스트에서도 낙마해 1년을 쉬고 결국 공익근무 요원으로 2년이란 시간을 더 쉬게 되었다. 군복무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넥센 구단에 신고 선수로 입단하게 되었지만 몇 차례 2군 경기 출전 후 또 다시 2011년 6월 구단으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게 되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라는 말로 당시의 아픔을 대신 전하는 그는 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해 7월 신생 구단인 NC다이노스 구단의 공개 트레이아웃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되었다. 그는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이전보다 더 이를 악물었다고 한다. 다행히도 김경문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은 그의 가능성과 의지를 알아봐 주었고, 코치진과의 끊임

없는 노력 끝에 1군 무대에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 “제가 운이 좋게 감독님, 코치님 선배님들을 정말 좋은 분으로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기회를 주고 선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전 기회를 주신 김경문 감독님께 가장 감사합니다. 제가 안 좋을 때마다 하나하나 잡아주시는 최일연, 김상엽 투수 코치님께도 항상 감사합니다.”라며 모든 공을 코치진에게 돌린다.

이제는 팬들에게 좋은 경기로 보답할 때

김진성 선수는 지난 시즌 NC다이노스의 부동의 마무리 투수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아직 타구단의 이름난 마무리 투수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앞선다고 한다. 타팀의 마무리 투수는 대개 강속구를 가지고 있거나 경험이 많이 베테랑 투수가 맡고 있는데, 타팀에 비해 자신이 상대팀에 주는 위압감이 덜하다는 생각에 더 나은 기량으로 승부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올 시즌 들어가기 전 야구를 한번 즐겨보자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항상 성적에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압박을 받는 부분도 있어서 그에 따라 마운드 위에서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목표는 야구를 즐기는 것입니다. 야구가 늘 잘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때의 상황을 즐기다 보면 분명 좋은 성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는 야구에 미쳐보고 싶습니다.”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내비친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팬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올 시즌에는 더욱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인지 이번에 만나게 된 하병훈 연구원이 대표하게 된 세플러코리아와의 만남도 자신에게는 매우 소중한하며 인터뷰가 끝나고 자리를 뜨는 그 순간까지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침없이 가자’라는 NC다이노스 구단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올해에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그의 행보에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하겠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세플러코리아 물류의 심장, 남부물류센터

서울사무소 영업직 직원들의 남부물류센터 탐방기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기업체의 또 다른 속제는 바로 물류다. 크게 제품의 보관과 유통이라는 측면으로만 물류를 논하는 것은 물류에 대한 오관이다. 제품의 생산량은 소비자의 구매량과 비례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생산단가와 이익의 측면을 따져보면 물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생산과 판매, 그리고 소비자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주는 물류에 대해 세플러코리아 물류의 중심에 있는 남부물류센터를 통해 살펴보자.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 사전 브리핑을 실시했다. 영업사원들의 심도있는 질문이 이어졌고, 남부물류센터 김진호 부장도 이에 알기 쉽게 답변했다.

세플러코리아 물류의 중추적 역할 담당

창원에 위치한 남부물류센터는 연구소와 인접해 자리하고 있다. 약 9,917㎡ 부지에 마련된 남부물류센터는 창고의 넓이만 8,595㎡를 자랑하는 대규모 물류센터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중부물류센터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전주물류센터와 함께 세플러코리아의 생산품은 물론 독일 수입 제품 및 해외 수출 제품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남부물류센터의 경우 대전 이남 지역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대규모 공단지역이 밀집해 있는 남부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물류의 규모도 많다. 이렇게 대규모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도 근무인력은 용역인력을 포함해 43명에 불과하다. 이는 최신의 물류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졌는데, 특히 생산 입고, 제품 Bin 등록, 차량배치 등의 까다로운 업무를 모두 전산시스템을 통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년간의 물류센터 운영의 노하우를 통해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의 효율화 및 동선의 간소화 과정이 더해져 가능해졌다.

영업 현장에서 바라본 남부물류센터

이번 남부물류센터 방문에는 그동안 직접적으로 업무를 통해 교류를 이어왔던 서울사무소의 영업 업무를 맡고 있는 사원들이 참여했다. 산업기계 어플리케이션 에너지&중공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후 사원과 사시 시스템 해외 계열사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장용건, 강세진 사원이 방문하게 되었다.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영업부서에서 발주를 의뢰하면 남부물류센터에서 이를 받아 상차 작업까지 완료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 과정에서 온라인으로만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실제로 물류센터 현장에서 작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자세히 알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업무적 의견차가 생기기도 했었는데, 이번을 기회로 현장에서의 프로세스를 숙지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남부물류센터에서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 자료를 통한 사전 브리핑을 실시했다. 브리핑은 남부물류센터 김진호 부장이 직접 진행했는데, 남부물류센터의 전반적인 현황을 비롯하

여 발주에서 납품에 이르는 업무 프로세스와 물류시스템, 남부물류센터의 물류량, 특징점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하였다. 이어 남부물류센터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울사무소의 직원들은 모두 자신의 업무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보다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김진후 부장도 상세한 내용을 알기 쉽게 답변했다.

물류의 흐름을 한눈에, 깔끔하게 정돈된 최신 물류시스템

남부물류센터에 대한 브리핑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현장에 대한 안내와 설명은 남부물류센터 노종용 과장이 담당했다. 현재 남부물류센터는 생산 완제품 입고에서 수입부품 및 내수, 수출 출고 작업을 전부 수행하는 생산 물류 및 판매 물류를 겸하고 있는데, 이 전 과정을 차례대로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도록 이동하며 현장 견학이 진행되었다.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서울사무소의 영업 담당 사원들은 물류센터의 구석구석을 차분히

살펴보며 연신 노종용 과장에게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현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물품의 경우 주문 의뢰 시 경험했던 크고 작은 부분을 얘기하며 현장에 적용될 만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강세진 사원은 “물류 창고를 둘러보니 일반적으로 물류센터라면 떠오르는 복잡하고 청결하지 못한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고 식별이 매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어 놀라기도 했습니다.”라며 현장의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남부물류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

남부물류센터의 주요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판매물류와 조달물류로 나뉘는데, 쉽게 말해 판매물류는 세플러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

납품하기 위한 물류이고 조달물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 등의 물품을 수급하기 위한 물류를 말한다. 그러다 보니 물류 품목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규모도 컸다. 월간 물동량을 따져보면 입고량이 4,101톤에 달하고, 출고량의 경우 수출과 내수를 포함해 5,573톤에 이른다. 이를 입고와 출고를 합해 일간 물동량으로 환산해 보면 387톤이나 된다. 이렇게 많은 양의 물류를 차질 없이 바른 시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실제 남부물류센터의 현장은 깔끔하게 정리 정돈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입고 물품, 출하 대기 물품, 보관 물품 등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현장을 설명하던 노종용 과장은 “실제로 수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은 수출 출하품 대기 장소의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며 현재 업무 처리에 대한 어려움도 가감 없이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내년에는 말끔히 해결될 예정이다. 2016년 완공 예정인 새로운 물류센터가 현재 연구소 앞 축구장 부지에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물류량에 비해 조금 협소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모색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남부물류센터는 보다 원활하고 신속 정확한 물류를 위해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좌측부터) 산업기계 어플리케이션 에너지&중공업 김진후 사원, 사시 시스템 해외 계열사 판매 장용건 사원, 남부물류센터 김진호 부장, 남부물류센터 노종용 과장, 사시 시스템 해외 계열사 판매 강세진 사원



남부물류센터 업무 프로세스



Interview +one

사시 시스템 해외계열사 판매 장용건 사원

예전에 방문했던 경험이 있지만, 이번 코너를 통하여 남부물류센터 내부에 대해 깊숙히 보고,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김진호 부장님과 노종용 과장님의 자상하고 섬세한 설명에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된 것처럼 각 파트의 어떤 분이 무슨 업무를 하시는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그 업무에 참여해 봄으로써 회사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줄 아는 사원이 될 것입니다.



나노 기술(Nano Technology)을 응용한 구름 베어링용 그리스(Grease)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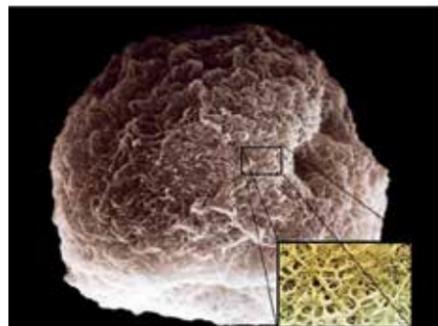
베어링과 윤활용 그리스

구름베어링은 산업기계, 모터, 가전기기, 자동차용 등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계나 자동차용 부품에서 고성능화, 소형화, 친환경화, 내구수명 향상 등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베어링에도 동일하게 이전보다 고온, 고속, 장수명, 소형화, 고강성화, 저소음 및 저토크화 등으로 요구되는 특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구름 베어링의 80% 이상이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한 장점 때문에 윤활용 그리스(Grease)를 사용하고 있다.



당사에서 사용중인 다양한 종류의 베어링 윤활용 그리스 그룹의 윤활관련 로고

고성능 베어링을 얻기 위해 베어링의 설계, 소재, 열처리와 제조공정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거의 한계 수준에 도달했다. 반면에 간편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고품질의 그리스를 사용할 경우, 베어링의 품질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베어링은 그리스의 종류와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구름베어링의 고성능화를 위해서는 고성능의 그리스가 요구된다. 그리스의 용도와 성능은 증주제(Thickener)의 종류에 크게 좌우되며, 같은 증주제의 경우에도 기유(Base oil)의 화학적 구조와 동점도에 따라 수명 등의 특성이 크게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범용 그리스는 리튬비누(Li soap)와 광유(Mineral oil)로 이루어져 있다. 범용 그리스로 많이 사용되는 리튬비누/광유에 비해 리튬비누/에스테르 오일(Li soap/Ester oil)은 저소음과 저토크의 특성을 나타내며 전형적인 광범위 온도 영역에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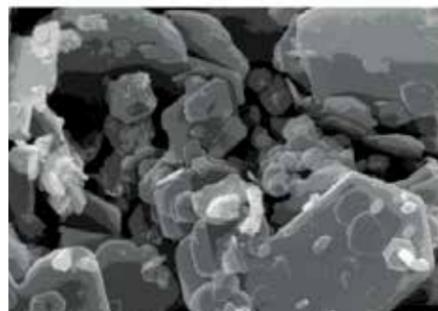


그리스의 구성성분 중 증주제의 전자현미경 사진

새로운 그리스 개발의 배경

요소/에스테르, 에테르 합성오일(Urea/Ester, Ether Synthetic oil)은 고온, 고속 모터용으로 적합하고 폴리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플루오린 오일(PTFE/Fluorine oil)은 초고온 및 장수명용으로 적합하다.

그리스는 사용 중에 일어나는 열분해작용으로 윤활성능이 저하돼 내구수명이 낮아지고, 그리스의 수명이 베어링의 수명을



나노 텅스텐 입자의 전자 현미경사진(10억 분에 1수준의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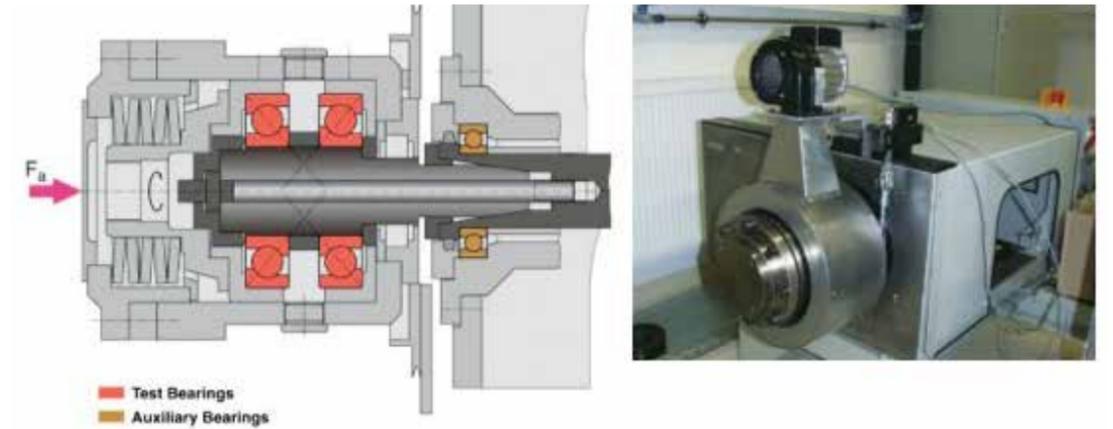
크게 제한하게 된다. 현재 베어링용 그리스로 많이 적용되는 그리스 종류는 리튬(Li)계와 요소(Urea)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업계 전반적으로 저토크, 저소음, 고온, 고속, 장수명의 그리스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물론 고기능의 불소계 그리스(기존 그리스 대비 15배 가격의 고가임)를 적용하면 가능하지만 가격 부담이 크다. 이러한 요구들을 해결해 보자 기존에 개발돼 적용 중인 자동차용 그리스인 요소/에테르오일(Urea/Ether oil)의 그리스에 나노 스케일(Nano Scale)의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그리스와 가격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능이 뛰어난 새로운 그리스 개발을 진행하게 됐다.

새로운 그리스 개발과 그룹 규격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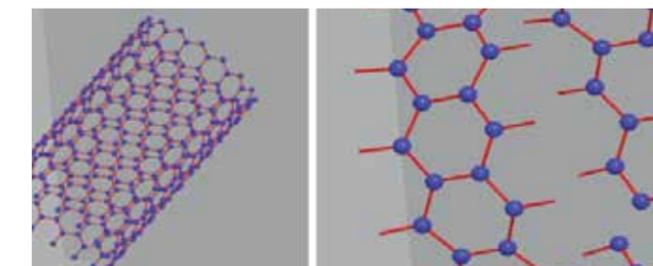
새로운 그리스는 나노 텅스텐(Nano-Tungsten - WS₂, Ø 100 ~ 300nm)의 분말입자를 기존의 요소/에테르오일 그리스에 2~5wt%¹⁾를 첨가하여 요소 합성법으로 제작했다. 이렇게 제작된 시제품은 기초적인 물리, 화학적 시험과 그리스 내구 수명시험을 수차례 실시해 신뢰성 평가를 완료한 후, 셰플러 독일 연구소에 최종 인증시험(FE-8, FE-9 그리스 수명시험)까지 완료했다. 개발이 완료된 그리스는 공식적으로 그룹의 그리스 코드 'L-305 그리스(S132120 -305)'로 등재됐다.

이번에 개발된 나노 텅스텐 그리스(Nano-Tungsten Grease)의 특징은 고온에서 장수명(기존 그리스 대비 2배 이상)을 가진다는 점과 아울러 저토크 및 저소음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적인 특성(전기 전도도)을 부여해 특히 전장용 베어링에서의 조기 파손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된 나노 텅스텐 그리스는 현대자동차의 PS-EV(전기 모터 및 감속기 베어링)용으로 적용 중이며 자동차의 전장용 베어링의 그리스로 확대 적용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 특허도 출원한 상태이며, 창원 연구소에서는 향후 나노 텅스텐 그리스의 내열(200℃ 이상)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나노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스 수명시험기 계략도(FE-8 시험기)



나노 텅스텐 구조의 3차원 모델링

1) wt% : 전체 화합물 g수 중에 존재하는 특정 물질의 g수의 백분율



후끈후끈~ 겨울 추위 잊게 하는 열기 속으로

안산공장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숯가마 찜질 체험

대개 추운 겨울의 관광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쓸쓸해 진다. 그러나 날씨가 추워질수록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곳이 있다. 바로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에 위치한 강원참숯영농조합이다. 참숯으로 유명한 이곳에서 안산공장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가 숯가마찜질의 후끈한 열기를 맞았다.

황토방에서 하룻밤을 묵은 다음날 아침, 안산공장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사우들이 숯가마 찜질에 나섰다.



후끈한 숯가마의 열기를 생각하니 겨울 추위는 진작 간 데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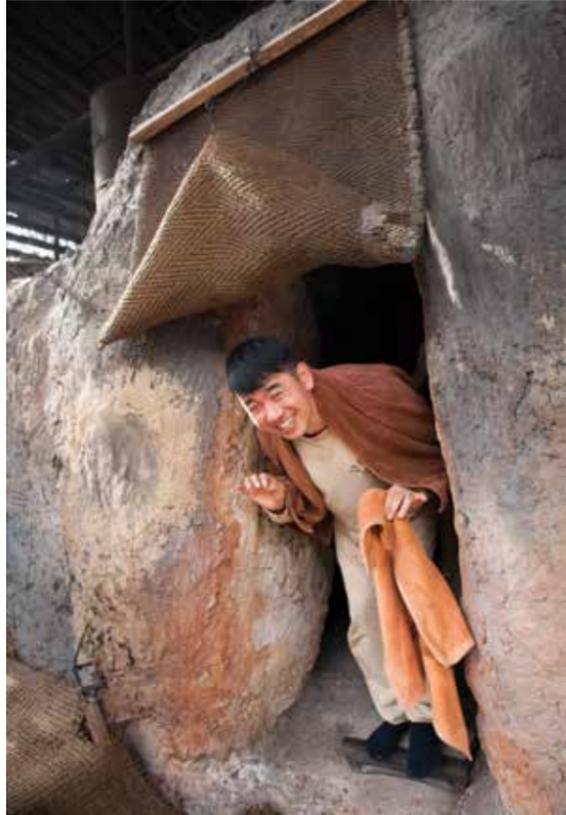
모락모락 연기 피어나는 숯가마가 있는 곳

강원참숯영농조합은 40여 년에 걸쳐 전통방식으로 숯을 만들고 있다. 보유한 숯가마만 해도 38개로 국내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숯가마 찜질은 숯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이용해 즐기는 찜질 체험이다. 특히 겨울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숯가마 찜질을 하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다. 이밖에도 강원참숯영농조합은 사람들이 보다 편안하고 알찬 휴식을 보낼 수 있도록 정육식당과 황토방, 참숯 매장 등 여러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체험의 주인공은 안산공장 벨트&체인&

베어링 세그먼트 일곱 명의 사우들. 그동안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한 탓에 잔뜩 쌓인 피로를 후끈한 숯가마 열기로 풀기 위해 발걸음 했다. 이들이 도착한 때는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한 저녁이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횡성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한우다. 주린 배를 안고 들어간 정육식당에서 사우들은 모처럼 한우로 배를 채웠다. 쏟아질 듯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풍족한 저녁을 즐긴 사우들은 황토로 지은 한옥숙박시설에서 잠을 청했다. 뜨끈하게 덥혀진 방바닥에 몸을 누이니 찬 기운에 움츠러들었던 몸이 풀어지면서 노곤하니 잠이 몰려온다. 그야말로 제대로 된 휴식이다.

최고급 참숯을 만드는 가마에서 즐기는 찜질

다음날 아침, 거세진 바람에 날씨는 더욱 쌀쌀해져 있었다. 생산팀 사우들은 옷깃을 여미고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는 숯가마로 향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숯가마 주변은 이미 찜질을 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때마침 사우들이 도착한 때는 찜질을 하는 가마 옆 빈 가마에 참나무를 넣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최동균 사원은 한편에 쌓인 참나무를 번쩍 들어보였다. "어휴, 보기보다 훨씬 무겁네요." 강원참숯영농조합에서 제조하는 참숯은 추운 날씨 속에서 강하고 단단하게 자란 횡성군 참나무로 만들어진다. 불을 붙이면



주변으로 흰빛을 내는 백탄으로, 낮은 온도의 전기나 가스 가마에서 속성으로 생산되는 흑탄과는 그 모습과 화력, 정성이 남다르다. 질 좋은 참나무를 숯가마에서 2,000℃가 넘는 고온으로 일주일가량 구워내면 비로소 최고급 참숯이 완성된다. 숯가마는 숯을 꺼내고 3일 정도 열을 식힌 다음에야 다시 숯을 구울 수 있다. 때문에 가마의 열을 식히는 동안 그 열기를 이용해 숯가마 찜질을 할 수 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도 개운한 숯가마 찜질

숯가마에 들어서자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좀 전까지 밖에서 덜덜 떨었던 게 언제냐는 듯 온몸에서 땀이 흥건하게 나기 시작했다. 가마 안은 온도가 높아 일반적인 찜질방과 달리 오래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 드나들며 땀을 빼야 한다. 처음에는 가마에서 30초간 머무르다 나오기를 서너 번 정도 반복하며 가마의 온도에 적응하고, 그 뒤엔 찜질시간 5분에 쉬는 시간 5~10분으로 일일 두 시간이 적당하다.

벌겋게 익은 얼굴로 가마를 드나들길 수차례. 송골송골 땀 맺힌 얼굴에는 개운함이 느껴졌다. “땀을 많이 흘려도 찜찜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이곳 숯가마는 고온으로 인한 열균작용으로 악취를 없애 땀 냄새가 나지 않고 끈적임도 남지 않는다.

숯가마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은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또한 피부 알레르기 및 아토피에도 효과적이라 치료를 목적으로 숯가마 찜질을 하러 오는 사람도 있다. 찜질을 할 때 땀을 빼고 바로 물로 몸을 씻으면 찜질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최소 4시간 동안은 땀을 자연건조 시키는 것이 좋다.

최고급 참숯을 만드는 숯가마에 드나들길 수차례. 송골송골 땀 맺힌 얼굴에는 개운함이 느껴졌다.



안산공장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임동현 사원, 김영만 사원, 정병화 사원, 최동균 사원, 박용찬 사원, 이태일 세터, 박용수 사원

Interview +one

안산공장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임동현 사원

지난해 4월 입사하고 처음으로 팀원들과 단합하는 시간을 갖게 돼 기쁩니다. 숯가마 찜질을 하면서 그동안 못 나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아 선배님들과 한층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찜질의 기운을 받아 새해에도 다들 건강하게 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숯가마는 끈끈한 동료애를 남기고

찜질방하면 빠질 수 없는 '양머리'. “이걸 빼 먹으면 안 되지~” 정병화 사원이 수건을 둘둘 말아 양머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각자 얼굴 크기만 한 양머리를 쓴 채 가마 앞에 옹기종기 둘러앉으니 웃음이 절로 난다. 안산공장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사우들은 본디 반장과 세터 2명을 포함, 총원 11명이 한 팀이다. 재료를 고열로 녹여 액화시킨 뒤 사출성형 해 풀리(Pully), 체인가이드 등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사출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통 팀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라면 술자리가 전부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우들은 2년 전 배드민턴 동호회를 만들어 꾸준한 모임을 갖고 있다고. 팀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박용수 사원은 “지난해에는 회비를 모아 내린천으로 여행을 간 적도 있다”며 팀원 간의 돈독한 사이를 자랑했다. 모처럼 갖게 된 1박 2일 여행은 그동안 쌓인

애기를 나누기에 충분했다. 뜨끈한 숯가마에서 함께 땀을 내고 있으니 업무 관련 얘기 외에 평소에는 잘 하지 않던 개인적인 얘기도 쉽게 털어놓게 된다. 흘린 땀만큼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숯가마에서 뿔어져 나오는 열기 속에서도 사우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올해로 입사 13년차에 접어든 이태일 세터는 “우리가 같은 회사, 같은 팀으로 모이게 된 것도 인연이라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새해에도 힘든 일이 많겠지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이태일 세터의 말에 다들 파이팅을 외치며 각오를 다지는 이들이었다.

뜨거운 숯가마 찜질을 마치고 사우들은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는 숯가마를 뒤로했다. 맛있는 음식과 피로를 풀어준 찜질까지, 겨울 휴식으로 딱인 강원참숯영농조합에서 보낸 1박 2일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즐겁게 회상할 수 있는 추억이 되길 바란다.



추위를 잊은 채 따뜻한 마음 속 길목을 거닐다

창동예술촌에서
다채로운
색상의 벽화들은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듯했다.
빨간 목도리를
서로 매만져 주며
제법 친해진 그들은
벽화를 따라
발걸음을 재촉했다.



수줍었던 창원아가씨와 창원총각의 첫 만남

골목마다 정겹게 그려진 벽화를 따라가다 마주치는 창동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다. 연구소 제품기술팀의 김수연 연구원과 창원공장 설비보전의 문혜영 사원은 모두 창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첫 만남이라고. 낯설 없이 친근하게 이야기를 건넨 김수연 연구원과 수줍지만 밝은 미소로 분위기를 이끌던 문혜영 사원의 데이트가 문득 기대된다.

한적할 것만 같은 겨울의 한 골목에서 파스텔톤 색상의 벽화들은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듯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창원이 고향이라는 문혜영 사원과 제주도가 고향이지만 창원에서 오래 생활한 김수연 연구원은 공통된

화제가 많았다. 맛집 이야기부터 회사 이야기까지. 빨간 목도리를 서로 매만져 주며 제법 친해진 그들은 다양한 벽화를 따라 발걸음을 재촉하며 자리를 옮겼다.

나란히 거닐던 다채로운 창동예술촌 골목

마산 예술 흔적 골목, 에꼴드 창동 골목, 문신 예술 골목,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 분위기를 더한 창동예술촌은 자연스럽게 문화 예술을 즐기기에 충분했다. 마산 예술 흔적 골목은 스토리텔링식의 연출을 통해 1950~1980년대 마산 르네상스 골목 모습을 복원·재현했고, 에꼴드 창동 골목은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으로, 문신 예술 골목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두 사람은 옛 창동과 현재의 창동이 공존하는 마산 예술 흔적 골목에서 벽화와 작품을 어루만지며 걸었다. 특히 창동예술촌의 상징인 '추억의 트리' 작품 앞에서 한참을 머무르다 문혜영 사원이 먼저 말을 꺼낸다. 창원에서 오래 살았지만 변화된 창동예술촌은 처음이라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골목이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곳이라며 데이트 장소로 추천했다.

서로의 추억을 초코로 새기다

마산 예술 흔적 골목을 벗어나 부림시장이 보이는 창동 거리를 건너면 문신 예술 골목이 바로 보인다. 창원이 낯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이름을 딴 이 골목은 예술가의 공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두 사람은

COUPLE

김수연 연구원
연구소 제품기술팀

문혜영 사원
창원공장 설비보전

영하 10도를 웃도는 추운 겨울 날씨에도 창동예술촌의 길목에는 벽화작업이 한창이다. 90년대 화려했던 옛 창동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로 언제나 사람들이 붐볐다. 하지만 창동을 이루던 가게들이 인근 도시로 이전해 가면서 쓸려해졌고, 찬란했던 창동은 추억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2012년 5월, 창동예술촌으로 탈바꿈하면서 생기 넘치는 지금의 창동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한층 가까워진 두 사람의 분위기가 주변까지도 따뜻하게 만들었다. 막 완성된 곰돌이 방문패에 바로 메시지를 써내려간다. '세플러 애정촌 & HAPPY NEW YEAR~'



좁은 골목길을 걷다 한껏 들뜬 마음으로 아담한 초크아트 공방의 문을 열었다. 오늘의 미션은 초크아트 방문패 만들기. 자신 없었던 김수연 연구원이 팔을 걷어 부치고 초크를 손에 쥐었다. 크레파스와 비슷한 초크로 두 사람은 커플 곰돌이를 그리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 열심히 그리면서도 서로의 작품이 문득 궁금했던 모양이다. 어꺼너머 완성돼 가는 서로의 곰돌이를 보며 웃음을 터트렸다. 한층 가까워진 두 사람의 분위기가 주변까지도 따뜻하게 만들었다. 막 완성된 곰돌이 방문패에 바로 메시지를 써내려간다.

'세플러 애정촌 & HAPPY NEW YEAR~'

새롭게 적어 내려가는 새해의 다짐

따뜻한 카페로 들어선 두 사람은 언 몸을 녹이며 2015년의 설렘을 함께 나눴다. 이제 입사 1년차인 문혜영 사원은 초심을 잃지 않는 세플러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 입사 때는 일에 쫓기지 않고 일을 쫓는 사람이 되고자 했지만, 오히려 닥친 일에만 급급해 하고 있는 자신이 보였단다. 다가오는 2015년에는 처음 그 마음처럼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겠다고 다짐해본다. 뒤이어 그녀보다 1년 선배인 김수연 연구원도 새해 다짐을 말한다. 바로 사람들의 새해 목표 1순위라는 금연. 건강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금연 해야겠다고 사뭇 진지해졌다. 덧붙여 1등은 할 수 없어도 언제나 노력하는 세플러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 세플러인이라는 인연이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즐거웠던 시간을 뒤로한 채 해는 저물었다.

쓸쓸하고 적막할 것만 같았던 겨울 길목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진 창동예술촌은 추위를 잊은 듯 따뜻했다. 이들의 소망과 다짐, 더불어 한 해 동안은 오늘의 추억을 잊지 못할 것이다.

+ PLACE
 고기잡이 박정원의 초크아트
 문의 : 070-8907-3367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창동 65-2 1층 (롯데리아 뒷 골목)
 홈페이지 : ozchalkart.blog.me
 체험료 : 방문패 만들기 (10,000원)

Interview +one

창원공장 설비보전 문혜영 사원

골목마다 아기자기한 창동예술촌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초크아트 체험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 듯,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1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바빠 움직이고 싶습니다. 세플러 가족들 모두 소망하고 계획한 것들이 잘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세플러인이라는 인연이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는지도 모른다. 한적한 겨울 길목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추위를 잊을 만큼 따뜻했다. 이들의 소망과 다짐, 더불어 한 해 동안은 오늘의 추억을 잊지 못할 것이다.



때로는 표현해야 아는 것도 있다

전주공장 치공구서비스 오원균 사원과 그의 부모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느 광고의 유명한 문구처럼 가족이란, 특별한 말이 필요치 않은 관계다. 그러나 때로는 걸로 표현하는 마음이 가족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기도 한다. 평소 애정표현에 서툴다는 전주공장 치공구서비스 오원균 사원은 이번 <부모님 감사합니다>를 통해 큰맘먹고 부모님을 일터로 초대했다.

익숙한 얼굴과의 낯선 만남

올해로 입사 4년차에 접어든 오원균 사원의 주된 업무는 베어링 형변의 생산을 확인하고 치구를 설계하는 일이다. 공장에서 양산되는 치구가 모두 그의 관리 아래에서 나오는 셈이다. 고등학교에서 설계 공부를 한 그는 덕분에 처음 입사해서도 업무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고, 적성도 잘 맞고, 좋은 직장 동료가

있어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는 그는 부모님께 회사에 대한 칭찬을 자주 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인 오원균 사원은 집에서 마주하는 게 익숙한 부모님을 일터에서 만나 뵈려니 괜히 긴장이 되는 모양이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모시고 공장에 들어선 오원균 사원은 걱정과 달리 막힘없이 자신의 업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언제나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아들

공장을 둘러보는 내내 마주치는 직원들마다 인사를 빼놓지 않는 오원균 사원. “오늘 부모님 모시고 왔어요.” 부모님께 동료 직원들을

소개하며 목소리에 한껏 힘이 들어갔다. 오원균 사원의 남다른 인사는 평소 아버지 오병일 씨의 가르침에서 비롯됐다. “아들이 입사를 했을 때, 기쁨을 제일 많이 묻힌 사람에게는 꼭 인사하라고 일러두곤 했습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은 없다는 생각을 갖고, 늘 배우는 자세로 일하라는 아버지의 조언은 상사와 동료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지금의 오원균 사원을 있게 했다.

“이들 덕분에 출세했네.” 어머니 김옥화 씨가 입을 열었다. 학창시절 성실한 모범생으로 선생님과 주변 이웃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는 오원균 사원은 부모님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아들이었다고, 이제는 어엿한 직장인으로 자리를 잡은 아들이 대견하다는 김옥화 씨. 그에게 오원균 사원은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상추쌈으로 가진 오랜만의 가족 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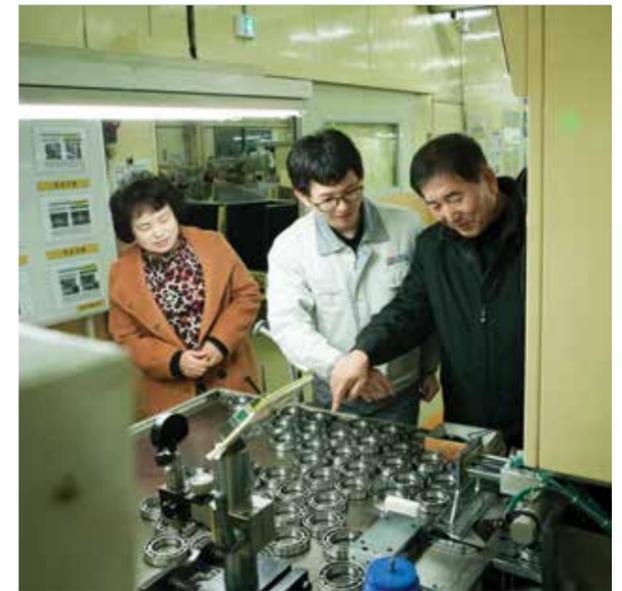
일터를 빠져나와 향한 곳은 공장에서 멀지 않은 한 고깃집. 부모님은 얼마 만에 갖는 아들과의 저녁 식사라며 기쁘게 자리를 잡았다. 사원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는 오원균 사원은 부모님과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다고, 아들이 그리운 어머니는 하루에 한 통씩 꼭 전화한다. “바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피곤하고 귀찮은 마음에 집에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늘 제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죠.” 맛있게 구워진 고기를 상추쌈 해 한가득 아들의 입에 넣어 주는 어머니. 이제 번듯한 직장도 들어갔으니 장가만 가면 소원이 없겠단다. 옆에 있던 아버지도 예쁜 며느리가 보고 싶다며 어머니의 말을 거들었다. 부모님의 재촉에 오원균 사원은 그저 씩스럽게 웃기만 할 뿐이었다.

얼마 뒤에 이사를 한다는 부모님의 얘기에 오원균 사원은 일손을 거들기로 약속했다. 새해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오원균 사원. 굳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

Interview +one

전주공장 치공구서비스 오원균 사원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부모님을 만나 뵈려니 처음에는 그 상황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둘러보며 좋아하시는 부모님을 보니 초대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부모님께 좀 더 살가운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새해에도 편찮으신 데 없이 늘 건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를 꼭 닮은 오원균 사원은 새해에는 좀 더 살가운 아들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세플러인들에게 묻는다! 자녀교육,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녀를 둔 부모라면 늘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교육이다.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한다. 정답은 없다. 이제는 삶의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자녀교육의 방향과 방법도 다양 각색이다. 그렇다면 자녀를 둔 세플러인들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로 알아보았다.

설문대상 : 세플러코리아 전직원
설문기간 : 2014년 12월 8일 ~ 2014년 12월 19일
총 응답자수 : 175명



01



자녀를 키우는 과정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힘든 만큼 보람도 큰데요, 어떤 때 '내가 자녀를 잘 가르쳤구나' 느끼시나요?

- ① 학업 성적이 잘 나왔을 때 (5%)
- ② 주변으로부터 자녀의 칭찬을 들을 때 (38%)
- ③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걸 볼 때 49%**
- ④ 음식, 옷, 공부방 등 좋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 줄 때 (3%)
- 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잘 따를 때 (5%)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김교육 씨는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다. 한창 사춘기를 겪을 나이로 예민한 아들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김교육 씨. 그러나 얼마 전 우연히 만난 담임 선생님을 통해 아들이 학교에서 바르게 생활하고 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아들 하나는 참 잘 가르쳤구나!"

02



자녀교육에는 신경 쓸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녀교육의 방향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무엇인가요?

- ① 학업 성적 (7%)
- ② **예의범절 51%**
- ③ 교우관계 (9%)
- ④ 진로 (15%)
- ⑤ 건강 (18%)

얼마 전 집으로 온 아들의 성적표. 지난 학기보다 한참 떨어진 등수에 김교육 씨는 화가 잔뜩 났다. 때마침 귀가한 아들을 보고 훈을 내려던 찰나, 무거운 짐을 이고 있던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고 왔다는 아들의 이야기에 김교육 씨의 화는 눈 녹듯 사라졌다. "그래,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갖추는 게 먼저지!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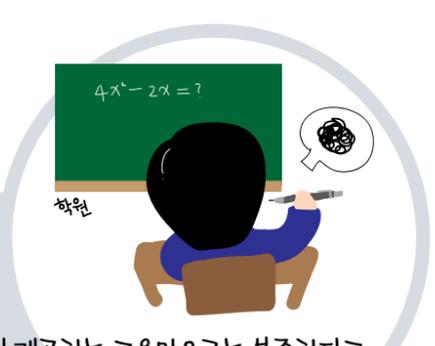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뉴스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 부문 가운데 관심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① 자기주도 학습법 (29%)
- ② **창의·인성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48%**
- ③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법 (5%)
- ④ 입시제도, 교육정책 (6%)
- ⑤ 진로와 진학 선택 (12%)

요즘 자녀교육에 있어 김교육 씨의 관심은 다름 아닌 창의적 체험활동에 쏠려 있다. 자신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이를 신장해 창의적인 직업관을 갖도록 돕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창의·인성 프로그램이 교육계에서 화두다. "무조건 공부하라고 강요를 할 게 아니지.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고찰하도록 하려면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받도록 해야겠어."

05



이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① 교내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22%)
- ② **학원, 과외 55%**
- ③ 문제집 등 관련 서적 (6%)
- ④ 부모의 직접 지도 (10%)
- ⑤ 없다 (7%)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으로는 자녀의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낀 김교육 씨. 중학생 딸을 둔 이웃집 아주머니를 통해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과외선생님을 추천받았다. 이외에도 어느 학원이 무슨 과목을 잘 가르친다며 김교육 씨에게 과목별로 유명한 학원들을 소개해 주는 이웃. "많은 또래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고 있구나. 우리 아들도 학원에 보내야 하나..."

04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정보수집이 중요합니다. 평소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얻고 있나요?

- ① **뉴스·신문 42%**
- ② 관련 서적, 교육 매거진 (22%)
- ③ 아이의 친구 부모, 학부모 모임 (22%)
- ④ 외부의 자녀교육 관련 카페 (6%)
- ⑤ 학원 등 교육전문기관 (8%)

맞벌이라 학부모 모임에 자주 참여할 수 없는 김교육 씨 부부. 자녀교육을 위해 관련 서적이나 잡지를 찾아보기도 하지만, 바쁜 직장생활 탓에 일일이 챙기기 힘들 때가 많다. 대신 김교육 씨는 평소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뉴스나 신문 등 언론매체를 자주 접하고 있다. 최신 교육 동향에 대해 알 수 있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06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사교육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자녀의 사교육비 (1인 기준)는 한 달에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① **50만 원 미만 70%**
- ② 50~100만 원 (26%)
- ③ 100~150만 원 (2%)
- ④ 150~200만 원 (1%)
- ⑤ 200만 원 이상 (1%)

아들을 학원에 보내기로 결정한 김교육 씨가 학원을 알아보니 학원비가 천차만별이다. 한 과목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곳도 있었다. 김교육 씨는 무분별하게 무조건 비싼 학원에 등록할 게 아니라, 일정한 사교육비 기준을 두고 학원을 알아보기로 했다. "한 달에 50만 원 미만으로 교육비를 산정해야겠다. 많은 돈을 쓴다고 현명한 선택은 아니지."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촉촉한 피부로
다시 태어난
다섯 남자

전주공장 생일자를 위한 선물

겨울철 추운 날씨와 건조한 바람은 피부의 적이다. 건조한 공기와 더불어 스트레스, 잦은 술자리는 각종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제는 세안만 열심히 할 게 아니다. 지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야 할 때다. 건조하다 못해 까칠해진 세플러인의 피부를 위해 촉촉한 피부 마사지를 마련했다.

(왼쪽부터) 전주공장 헬베어링 세그먼트 김호중 사원 (1월 15일), 전주공장 헬베어링 세그먼트 소병일 사원 (2월 15일), 전주공장 열처리 세그먼트 김정수 사원 (12월 25일), 전주공장 볼베어링 세그먼트 김철정 사원 (12월 16일), 전주공장 설비보전 이동호 사원 (11월 3일)



고단했던 하루를 뒤로 한 채 전주공장 생일자들은 전문가의 손길에 얼굴을 맡겼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피부 마사지에 그간 쌓인 피로도 전부 풀리는 기분이다.



겨울을 확인하는 헬베어링 세그먼트 김호중 사원 한결 촉촉해진 피부에 만족스러운 표정이다.

겨울철 거칠어진 피부를 촉촉하게

전주공장 근처의 한 피부관리 숍. '딸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다섯 남자가 들어섰다. 하루의 고단함과 매서운 추위를 잔뜩 이고 온 얼굴들은 잔뜩 거칠어져 있었다. 올 겨울 생일을 맞은 세플러인을 위한 선물은 피부 마사지다. '건강의 창(窓)'이라고 불리는 얼굴. 깨끗하고 윤기 나는 얼굴은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건강하다는 의미다. 오늘도 수고한 이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 <세플러+원>이 나섰다.

피부관리실에 놓인 다섯 개의 침대 위에 쫄쫄룩룩한 세플러 생일자들. 분홍색 수건을 머리에 싸맨 모습을 보고 너도나도 웃음이 터졌다. 이들이 받을 피부 마사지는 지친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 줄 수분케어다. 잠이 솔솔 오는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의 손길에 편안히 얼굴을 맡기니, 그간 쌓인 피로도 풀리는 것 같다.

환해진 얼굴만큼 즐거운 생일이 되길

본격적인 피부 마사지에 앞서 각질 제거부터 시작했다. 피부관리사는 "시중에 파는 제품으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다"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각질을 제거해주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음에는 알로에 수당젤을 발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기. 알로에가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이곳 피부관리 숍은 초음파를 이용한 마사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피부로는 느낄 수 없는 초음파의 미세하고 빠른 진동이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피부에 탄력을 불어넣어 준다. 마사지를 받을수록 세플러인들의 얼굴빛은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남자도 피부에 신경 쓰는 시대라고 하지만 전문적인 피부 관리를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설비보전팀 이동호 사원은 평소 로션만 대충 바르는 게 피부관리의 전부란다. "이번



“정성이 담긴 마사지를 받으니 피부가 몰라보게 변했어요~”



생일자는 어떤 이벤트를 받을지 궁금했는데, 피부 마사지일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이동호 사원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생일 선물은 값비싸기보단 정성이 느껴지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휠베어링 세그먼트의 소병일 사원은 이번 선물이 맘에 든 눈치다. “생소하지만 재미있는 추억이 될 것 같아요.” ‘피부가 오늘 제대로 호강한다’며 매끈해질 피부를 기대하는 다섯 명의 세플러인들. 곧 맞이할 생일에는 한층 환해진 얼굴로 지내길 바란다.

있고 있던 나의 소중함을 되찾아준 선물

마지막 단계인 마스크팩까지 마사지가 모두 끝나고 나니 칙칙했던 처음의 얼굴은 간 데 없고 윤기가 흐르는 맑은 피부만 남았다. 사우들은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 달라진 피부를 확인하느라 겨울 앞에서 떠날 줄

모른다. “우와~ 이게 누구야!” 옆에 있는 동료들 마주보며 감탄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이 났다. 생일을 맞은 전주공장 사우들을 위해 마련된 피부 마사지. 이번 이벤트는 맑은 피부뿐만 아니라 한동안 잊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소중함도 되찾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는 일도 즐기지만 이렇게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겠어요.” 덧붙여 새해에는 바쁜 직장생활로 뒤로 미루어 둔 스스로의 행복에 투자하겠다고 다짐해본다.

특별한 생일 이벤트를 기념하기 위해 단체사진을 찍기로 했다. 촉촉한 피부로 다시 태어난 전주공장 사우들은 자신 있게 포즈를 취했다. 다가온 2015년 새해도 이들의 피부처럼 반짝반짝 빛나길 응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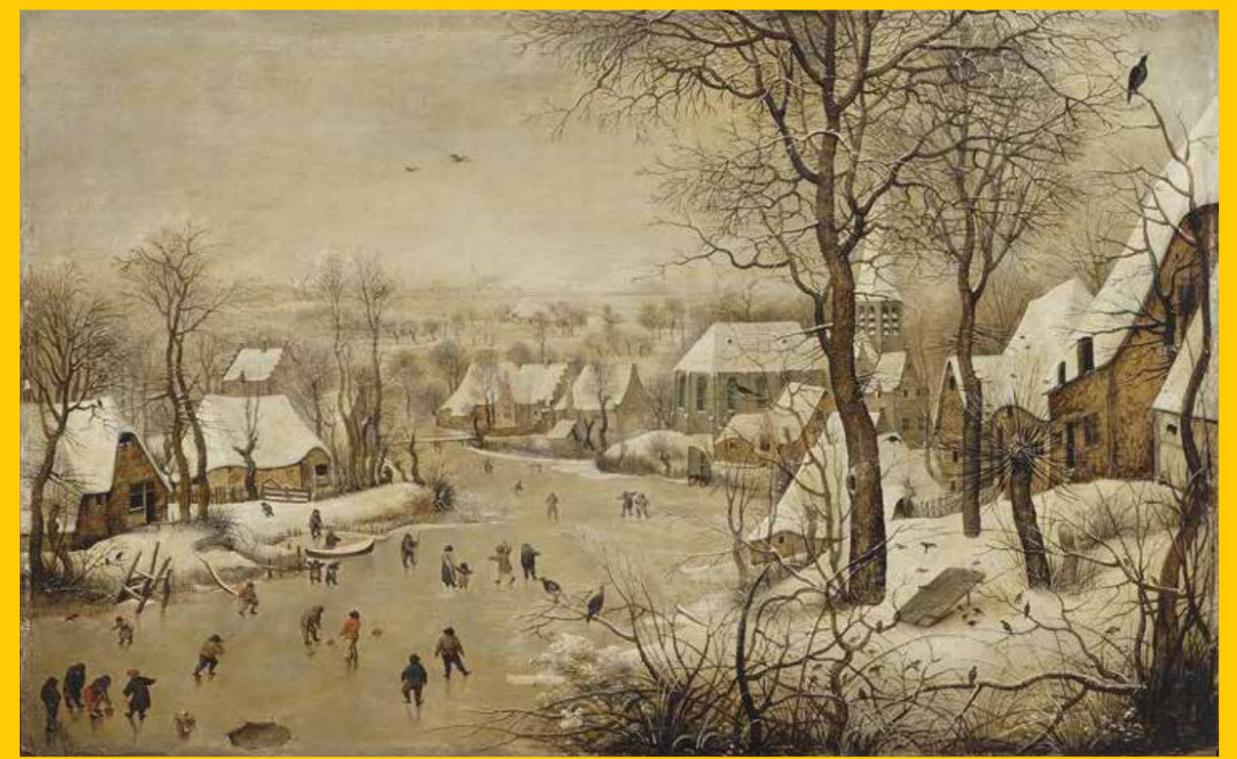
Interview +one
열처리 세그먼트 김정수 사원



처음 해보는 경험에 어색했지만 기억에 남는 생일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추억을 남겨준 <세플러+원>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행복한 생일과 더불어 희망찬 새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는 일도 건강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세플러코리아 파이팅!

For Life 이 한장의 그림

● 겨울 명화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소 피테르 브뤼헬, <겨울의 기쁨 (Les plaisirs de l'hiver)>, 캔바스의 유화, 16세기경, 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RMN)
브뤼헬이 바라보는 겨울은 정경다. 그에게 겨울은 춥고 쇠약해져만 가는 계절이 아닌 더욱 활기차고 즐겁기만 하다. 공공 얼어버린 길 위에 아이들은 팽이치기, 스케이트 타기를 하며 신이 난 모양이다. 엄마 손을 꼭 잡은 아이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을 뻗어 중심을 잡아본다. 특히 브뤼헬의 <겨울의 기쁨>에는 채도가 낮지만 밝은 색상인 옐로우 톤을 사용해 따뜻한 느낌을 더했다. 즐거운 겨울의 모습 안에서도 그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다. 사람의 일은 한치 앞도 모르는 일. 좌측 아래에 크게 파인 웅덩이, 우측 아래의 새 멧이 그려있다. 뜻하지 않은 위험을 항상 조심하라는 그의 애정 어린 충고일지도 모른다.



도심 한가운데서 즐기는 겨울 캠핑

안산공장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김인구 사원

캠핑의 고수들은 가장 낭만적인 캠핑의 계절로 겨울을 꼽는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동반한 겨울 캠핑은 자칫 감기만 얻어오는 '고생'이 될 수 있다. 편의시설은 물론 볼거리도 많은 도심으로 캠핑을 떠나는 건 어떨까. 단풍이 채 다 떨어지지 않은 초겨울, 안산공장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김인구 사원의 가족이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숨은 볼거리 가득한 도심 속 캠핑장

세 자녀를 둔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김인구 사원은 평소 가족 캠핑을 자주 간다. 귀찮을 법도 한데, 주말이면 어김없이 집을 꾸러 밖으로 나간다. 몇 년 전만 해도 주말이면 늘어지게 자기 바빴던 그는 지인의 추천으로 캠핑을 가기 시작했다. "캠핑을 가면 텐트도 치고, 요리도 하고 뭐든 다 같이 도와서 해야 하잖아요. 아이들과 가까워지기에는 캠핑만한 게 없어요." 챙겨가야 할 것도, 가서 해야 할 것도 많은 게 캠핑이지만 몸이 편한 여행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매력이 있다. 인천대공원 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은 도심 한복판의 넓은 녹지 공간에 위치해 있다.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고, 인천대공원의 즐길 거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이다. 김인구 사원 가족은 캠핑장에 잠시 짐을 내려두고 인천대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탁 트인 자연거장장을 따라 찾은 곳은 '환경미래관'. 이곳은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미래의 환경관을 제시하고 있는 전시공간이다. 아이들의 체험 학습으로 좋은 환경미래관은 길 한 구석에 놓인 숨은 볼거리다. "인천대공원에는 전에도 와봤지만 장미원이나 동물원을 구경한 게 전부였어요. 주변에 이렇게 볼거리가 다양한지 몰랐네요." 인천대공원에는 그밖에도 식물원, 야외음악당, 꽃전시관 등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테마공간이 가득하다.

숲속 도서관에서 꺼낸 추억

환경미래관을 나서서 발길이 닿은 곳에는 길쭉하게 뻗은 메타세콰이가 펼쳐져 있었다. 아직 가을의 흔적을 지우지 못한 메타세콰이아 길에서 다섯 가족은 나란히 손을 잡고 걸었다. "저게 뭐지?" 세 아이들이 뭔가를 발견한 듯 앞으로 뛰어나갔다. 이들이 달려간 곳에는 인천대공원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재미 '숲속 도서관'이 있었다. 흡사 공중전화 부스처럼 생긴 숲속 도서관은 누구나 책 한 권의 여유를 즐기라고 마련된 공간이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 책꽂이에 빼곡한 책들을 훑어보던 아내 이승진 씨가 입을 열었다. 김인구, 이승진 씨 부부의 인연은 13년 전 잘못 보낸 문자 한 통으로 이어졌다. 책에서 본 인상 깊은 글귀를 친구에게 보낸 이승진 씨의 문자가 전화번호 한 자리가 다른 김인구 씨에게 갔던 것.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한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처음 만나 연애 5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그 문자가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도 서로 존재도 모른 채 살아갔을 거예요." 숲속 도서관에서 꺼낸 옛 추억에 두 사람은 잠시 연애시절로 돌아갔다.



인천대공원의 환경미래관은 자녀의 교육에 좋은 체험학습 공간이다.

메타세콰이아 길에서 마주친 숲속 도서관에서 김인구 사원 부부는 잊고 있던 추억을 꺼냈다.





흔들다리를 건너는 다섯 가족. 산책길에는 곳곳에 숨은 재미가 있었다.

세 남매를 달래는 산책길의 흔들다리

올해로 불혹을 맞은 동갑내기 부부는 아빠를 꼭 닮은 첫째 딸 민서와 아들 동우, 일곱 살 막내 민아 각각 세 살 터울의 자녀를 두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민서는 만이답게 동생들을 살뜰히 챙기기 바빴다. 동우의 흠 문은 옷을 털어주고, 막내 민아의 손을 꼭 잡은 모습이 의적했다. 둘째 동우는 어느새 통통한 볼이 빨갛게 얼어 있었다. 취미가 춤인 만큼 몸짓이 날렵한 동우는 공원을 거니는 동안 혼자서 저만치 앞서 나가곤 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앞에서 시종일관 '예쁜 짓'을 멈추지 않는 민아는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애교만점 막내다.

길어진 산책 시간에 다소 지쳤는지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며 아빠를 조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채는 것도 잠시, 산책길 중간에 놓인 흔들다리를 본 둘째 동우가 먼저 달려 나가자 민아도 오빠를 따라 쭉쭉 달려갔다. 순서대로 줄을 서 다리를 건너는 다섯 가족. 흔들흔들 출렁이는 다리 위를 뛰어가는 아이들의 표정에 장난기가 가득하다.

만날 투닥거리느라 바람 잘 날 없는 세 남매지만 김인구 사원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행복하단다.

아빠를 도와 마련한 저녁 만찬

공원을 둘러본 뒤 캠핑장으로 돌아온 김인구 사원 가족. 어느덧 어둑해진 하늘을 보고 저녁준비에 들어갔다. 아빠를 도와 아이들도 팔을 걷어 붙였다. 민아는 쌀을 씻고, 민서와 동우는 아빠 옆에서 채소를 씻었다. 씻은 뭐가 그리 재밌는지 재잘재잘 수다를 떠느라 찬물에 손 시린 줄도 모른다. 집에서는 그렇게나 하기 싫던 일이 캠핑장에서는 어느새 즐거운 놀이로 변했다.

겨울캠핑에는 바비큐도 좋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가 별미다. 막내 민아가 언니, 오빠 옆에 앉아 고사리 손으로 고구마를 호일에 싸다. 자기 얼굴만큼 큼직한 고구마를 들고 활짝 웃는 민아. 아이들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은 그저 흐뭇하기만 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족 모두 저녁식사 자리에 빙 둘러앉았다. 동우가 고기를 굽겠다고 자처하며 집계를 잡으니, 그 옆에서 만이 민서는 부모님 앞에 수저를 놓기 시작했다. 집에서 볼 때는 마냥 어린 줄로만 알았는데, 벌써 훌쩍 자란 세 아이들이다.

맛있는 저녁식사와 함께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너나들이 캠핑장에서의 겨울밤이 깊어 갔다. 김인구 사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가족캠핑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에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이 이루어질 길 바란다.



부모님을 도와 저녁 만찬을 도운 세 남매. 어느덧 훌쩍 자란 아이들이었다.



TIP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
문의 : 032-465-2600
www.iparkcamp.com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아빠표 케이크

안산공장 엔진 부품 세그먼트 장성욱 사원의 케이크 만들기

특별한 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케이크. 누군가를 축하하기 위해 또는 여러 기념일을 위해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케이크다.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이 달콤한 맛은 순간을 행복한 추억으로 만든다. 정성을 듬뿍 담아 직접 만든 케이크라면 더할 나위 없다. 눈이 평평 내리는 겨울의 어느 날, 장성욱 사원이 가족들을 위한 케이크 만들기엔 나섰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케이크

케이크는 먹을 때만큼이나 그것을 만들 때 오는 기쁨도 크다. 내가 만든 케이크를 맛있게 먹는 누군가를 떠올리면 만드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진다.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위치한 케이크 전문 매장 '단하나 케이크'에서는 누구나 쉽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창문을 빼곡하게 채운 케이크 사진. 그간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완성한 케이크들을 사진에 담아 매장 인테리어로 사용했다. 단하나 케이크를 찾은 안산공장 엔진 부품 세그먼트 장성욱 사원은 창문에 붙은 사진들을 둘러보며 어떤 케이크를 만들까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가을호 <세플러+원>에서 신입사원으로 인사했던 그는 세 살배기 아들을 둔 어엿한

가장이다. 평소 단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촛불 불기를 좋아하는 아들에게 줄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이번 '프로에게 배우는 열정'에 참여했다. 게다가 아내가 둘째의 출산을 앞두고 있어 때마침 축하할 일도 생겼다고 벌써부터 장성욱 사원의 손에서 탄생할 아빠표 케이크가 궁금해졌다.

서투러도 괜찮아

평소 요리라고는 라면을 끓여 본 게 다라는 장성욱 사원은 케이크 만들기엔 앞서 다소 긴장돼 보였다. 요리 실력이 없어 걱정하던 그는 하나라도 빠트릴 새라 점장님의 설명에 귀 기울였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부풀어 오른 빵의 윗면을 평평하게 자르기. 케이크가 움직이지 않게 한 손으로 윗면을 살짝 눌러주면서 자른다. 이 때 칼을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면 표면이

들쭉날쭉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번에 자른다.

그 다음 단계는 아이싱(icing)하기. 아이싱은 케이크의 표면에 크림 등을 바르는 작업을 말한다. 표면에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매끄럽게 바르는 것이 관건인데, 단순히 보이지만 초보자에게는 꽤 어려운 기술이다. 일일이 생크림을 덜어 바르기보다는 스패츨러를 이용해 가운데서부터 점점 넓고 평평하게 퍼 바르는 것이 노하우. 케이크 윗면의 아이싱이 끝나면 스패츨러를 세워 옆면에 댄 채 돌림판을 돌려 아이싱을 마무리한다. "처음인거 맞으세요? 정말 잘 하시는데요." 깔끔하게 마무리한 아이싱에 점장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자, 장성욱 사원의 어깨가 으쓱했다.

마지막은 케이크 만들기의 대미인 데코레이션이다. 먼저 생크림 장식에 들어갔다. 장성욱 사원은 점장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크림을 고르게 짜기 위해 짤주머니에 일정하게 힘을 주는 데 집중했다. 생크림 장식은 어떤 각지를 끼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므로, 필요와 취향에 따라 적절한 각지를 고르면 된다. 생크림 장식이 끝나면 갖가지 과일과 장식 도구로 데코레이션을 마무리한다. 아내가 좋아하는 딸기와 아들이 좋아하는 눈사람으로 케이크를 꾸민 장성욱 사원. 끝으로 슈거파우더를 솔솔 뿌려 눈 내린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완성했다.

얼굴에 생크림을 묻혀 가며 만든 케이크는 처음 해본 실력으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완성도가 높았다. "오늘 집에 들어가면 아내에게 자랑 해야겠어요." 만드는 내내 잔뜩 힘이 들어갔던 얼굴에 이제야 환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들뜬 장성욱 사원. 케이크를 들고 매장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딸기 한 알 한 알 올리는 장성욱 사원의 손길이 조심스럽다. 입술을 꼭 다문 그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배어났다.



Interview +one

안산공장 엔진 부품 세그먼트 장성욱 사원

케이크 만들기라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라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재미도 있고, 결과물을 보니 만족스럽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내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줄 생각을 하니 뿌듯해요. 가족들의 표정이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 때까지 아들과 곧 태어날 딸이 건강하게 자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정관념에 숨겨진 궁금증을 벗겨보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일상생활 속 상식사전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의 꽃, 새하얀 웨딩드레스

“새하얀 드레스, 수줍은 발걸음~”.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에게 주목이 되는 것은 당연 웨딩드레스이다. 형형색색의 드레스가 많고 많지만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결혼식 당일에는 흰색 드레스를 입는다. 신부들은 왜 흰색 드레스를 입는 것일까?

그 역사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흰색의 웨딩드레스 이미지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결혼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빅토리아 여왕이 앨버트 왕자와의 결혼식에서 흰색 드레스와 흰색 면사포를 입은 이래로 사람들에게 웨딩드레스에 관한 인식이 생겨났던 것. 사실 이전 흰색의 상징은 순결과 부(富)였다. 16세기의 유럽에서는 순결하지 못한 처녀가 흰 옷을 입으면 옷 색깔이 변한다는 미신이 있었다. 또한 흰 천이 귀하던 근세시대에는 일부 상류층의 신분과 부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직조 기술의 발달로 대중들이 손쉽게 사용하게 되었으며, 빅토리아 여왕으로 인해 흰색 웨딩드레스는 전 세계인의 전통 결혼예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고정관념으로 생긴 익숙함에 무심코 지나치게 되는 사실이 있기 마련이다. 미처 알지 못했던 기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은 흥미를 유발하기도 한다.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깨알정보들을 파헤쳐보자.



꼬불꼬불, 식감을 자극하는 라면의 유혹

만화영화 <아기공룡돌리>에서 마이콜이 부르던 ‘꼬불꼬불 맛있는 라면’. 한 끼 식사대 용으로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라면이지만, 너무도 익숙해서 의문점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라면의 면발은 왜 꼬불꼬불한 것일까?

스파게티, 잔치국수, 메밀 등 다른 면발은 일직선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유독 라면만 꼬불꼬불한 상태로 포장되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다. 작은 봉지 안에 긴 면발을 가득 넣기 위해서 곡선의 형태로 포장한 것. 보통 라면 1개의 면발은 평균 50m의 길이이고, 한 봉지에 75~80가닥의 면발이 들어간다. 또한 꼬불꼬불한 면발은 일직선의 면발보다 유통과정에서 쉽게 부서지지 않으며, 면을 튀기는 과정에서도 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실생활에서 라면을 먹을 때도 고려된 형태이다. 꼬불꼬불한 면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서 골고루, 빠르게 익게 하여 쫄깃한 식감을 만들어낸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라면의 맛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소비자들의 불꽃 경쟁,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서는 11월 넷째주 목요일 추수감사절 다음날부터 연말까지 최대 쇼핑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가 열린다. 온 상점에 소비자들의 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소위 소비자들의 전쟁이라고도 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이 날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블랙 프라이데이는 1924년 뉴욕의 메이시백화점에서 추수감사절 세일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원래 블랙(Black)의 의미는 세일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를 일컫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흑자(Black Figure)의 의미로 바뀌었다. 특히 이 기간은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상승돼 연중 처음으로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이기도 한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전 종류의 상품을 20~90% 할인이 적용되는 연중 최대 쇼핑시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 기간의 소비현황을 통해 미국은 그해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기도 한다. 질 좋은 상품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어쩌면 소비자들이 일 년 동안 가장 기다리는 날이 아닐까.



새해 아침을 울리는 33번의 종소리

12월 31일 저녁의 종각은 타종식을 보기위한 수많은 인파들로 가득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2015년 새해를 알리는 33번의 보신각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제야의 종은 왜 33번 울리는 것일까?

제야의 종은 조선시대 때 백성들에게 사대문 개방과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 타종, 즉 파루를 33번 친 데서 연유한 것이다. 백성들은 타종을 통해 시간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타종은 정부가 맡은 큰 일 중에 하나였다. 특히 33번의 타종은 불교의 우주관인 ‘33천’에 기인한 것으로 고해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우주의 일월성신 28수(宿)에 고해 밤 동안의 안식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같은 의미를 이어받아 지금까지도 밝아오는 새해 아침,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기를 기원하면서 33번의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다. 2015년의 맑고 은은한 종소리에 힘입어 건강한 한 해를 기대해본다.

두.유.럽.유럽? (Do you love Europe?)

2011년 6월 24일, 한 달간의 유럽여행이 시작되었다. 출국 하루 전날 내가 탈 항공사인 아에로 플로트의 추락사고 소식. 다행히도 무사히 바르셀로나에 도착했고, 어느 한 명으로부터 시작된 안도의 박수는 비행기 전체로 퍼져나갔다. 추락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건 나 혼자뿐이 아니었던 것이다.



RED

나의 첫 여행지는 정열의 나라 스페인.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다. 숙소에서 만난 사람과 동행하며 함께 투우를 관람했다. 왜 점차 투우를 금지하는지 이해가 안 갔었지만 경기를 보면서 투우가 얼마나 잔인한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스페인은 음식도 입에 잘 맞고 볼거리가 정말 많았다. 해산물 볶음밥이라고 할 수 있는 빠에야와 와인카테일이라고 할 수 있는 상그리아는 정말 맛있었다. 볼거리로는 축구 팬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누캄프 경기장, 스페인의 정열적인 기타 반주 위의 열정적인 춤사위를 펼치는 플라멩코, 가우디의 건축물들과 주말에만 볼 수 있었던 분수쇼. 그 중에서도 2026년에 완공 예정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단연 으뜸이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만났던 사람들도 정말 많았다. 한국에서 군생활을 했다는 Bill Martin 아저씨와 함께 불렀던 아리랑과 얼룩송아지,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태권도복을 입은 소년. 나의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GREEN

니스에서 1박을 하고 도착한 곳은 이탈리아! 상징색은 국토를 의미하면서 이탈리아 대표음식인 파스타 위의 바질을 의미하는 초록! 이탈리아에서는 유난히 많은 도시를 돌아다녔다. 나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도시마다 특색이 있고 도시 간의 거리가 멀지 않아 이곳 저곳 많이 돌아다녔다. 세계에서 제일 영토가 작고 국민 수보다 관광객 수가 더 많다는 로마에서의 바티칸 시티 투어, 냉정과 열정 사이에 주 배경이었던 두오모 정상에서 한동안 머물렀던 피렌체, 너무 배를 많이 타서 땅이 울렁거렸던 물의 도시 베네치아, 일반인들은 패션에 관심 없어 보이던 밀라노, 사탑에 옆차기를 날렸던 피사. 이탈리아에서는 피자나 파스타보다 아이스

크림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우연히 안산 시립 합창단원들을 만났는데 내가 먹은 아이스크림의 색조합과 합창단원들의 한복 색이 같은 게 너무 신기하고도 반가워서 사진을 찍었다. 로마에서 시티 투어를 함께한 한국인 두 명과 인연이 닿아 베네치아에서 함께 저녁도 먹었고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PURPLE

내가 프랑스를 보라색에 비유한 이유는 나의 경험이 너무나도 극과 극이어서 마치 빨강과 파랑이 섞인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프랑스 국민만 제외하면 세계 제일이다."라는 말을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타 국가에 비해 사람들의 개성이 강하고 자존심이 센 것 같았다. "불어를 모르는 사람은 교양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부심이 넘쳐나서 내가 영어로 질문을 해도 불어로 대답하는 바람에 여행 중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정말 매력이 넘치는 나라였다. 자유분방한 사고방식과 melting pot이라 불리는 뉴욕만큼이나 다인종이 어우러져 있었다. 파리에서는 정말 색다른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은 푸아그라와 에스카르고였다. 푸아그라의 맛은 매우 기름진 햄 같고, 에스카르고는

WH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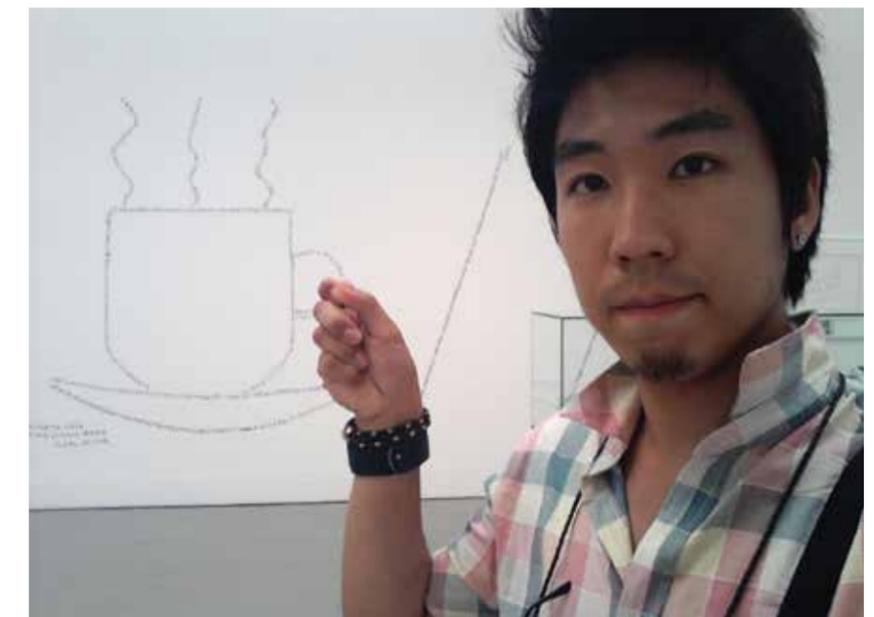
조금씩 피로가 누적되어 기차에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단잠을 자다가 눈을 떴을 때 나는 내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초록색 땅과 푸르른 하늘 그리고 알프스 만년설의 순백색이 어우러진 선명한 색의 조화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 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지인의 일행인 대만인 친구와 셋이 함께 설국열차(?)를 타고 융프라우요흐에 올라가서 빙하도 봤다. 대만인 친구는 눈을 처음 봤다며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눈을 입에 가져갔다. 융프라우요흐 티켓을 현지에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신라면을 제공하기에 의아했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 먹었던 신라면의 맛을 잊을 수가 없다. 패러글라이딩 강사에게 몸을 맡기고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물려드는 황홀한 기분은 아직도 생생하다. 직접 조종도 해보고 하늘을 날며 아름다운 스위스 전경을 만끽하고 강사가 해주는 공중 곡예에 "더~더~더~"를 외치며 하늘을 가로질렀다.

달팽이 요리라서 골뱅이 맛을 상상했지만 식감이 훨씬 부드러웠고 양념도 되어있어서 기대보다 괜찮은 맛이였다.

BLACK

영국의 상징인 블랙캡과 신사의 상징인 블랙슈트.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영어보다는 자국 언어를 많이 쓰기에 여행하는 동안 의사소통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영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언어에 대한 어려움은 많이 줄어들었다. 영국에서는 주로 문화생활을 즐겼는데 웨스트 엔드에서 맘미아를 봤고, 그 당시 개봉 중이었던 해리포터 최종편을 봤다. 영국은 극장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어서인지 영화관도 극장 느낌이 많이 났다. 시작하기 전에 영국인들이 해리포터를 사랑하는 만큼 뜨거운 박수를 치며 영화 관람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해리포터를 정말 사랑해서 친 박수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영화의 명장면이 나올 때마다 박수를 쳤다. 그리고 영화가 끝날 때도 물론 여지없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한 달간의 여행을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모처럼 이렇게 글을 쓰면서 추억이 되살아나서 참 좋았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다녀온 사람에게는 공감대가 생겼기를, 안 다녀온 사람에게는 '나도 유럽여행을 떠나고 싶다.'라는 작은 두근거림이 생겼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지으려 한다.



“신선이 살던 설악산 비선대”



01

가족과 함께 초여름 설악의 아름다운 경치를 느끼고자 1박 2일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복지를 이용하여 한화 리조트 설악을 예약하고 주변 여행 코스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보다 여행을 준비할 때 더 설레고 여행 때보다 더 여행하는 느낌이 들어 혼자 열심히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맛집과 가볼만한 곳을 검색하고 동선을 파악하다 보니 어느새 여행지에 있다는 착각이 들었고 마음이 붕붕 뜨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기 좋은 한화리조트 설악, 밤하늘의 맑은 공기와 함께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설악 워터피아, 신선이 살았을 것만 같은 설악산 비선대 그리고 이국적인 경치가 뛰어난 삼양목장으로 함께 출발 해보시죠~!

시간이 흘러 여행 출발 당일이 되었고 따스한 햇살이 우리 가족의 여행을 반기는 듯 했

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니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동안 있던 고민, 걱정도 조금은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일 때문에 많은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얼 굴만 보고 지내다가 강원도까지 가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니 가족에도 생기고 화목해졌습니다. 가족 5명 모두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운전기사가 많다는 점도 여행의 장점이었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운전을 하다 보니 평소에 느끼던 강원도의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가족이 힘을 모으면 무슨 일이든 더 쉬워지는 거겠지요?^^

우리 가족 여행의 첫 목적지는 속초 중앙 시장입니다~! 속초 하면 바다, 바다 하면 해산물을 떠올리지만 속초의 진정한 맛은 속초 중앙 시장의 만석 닭강정이다! 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도착하니 소문대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닭강정을 부는

- 01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겨레 사원(맨 우측)
- 02 아름다운 비선대 경치에 취하고, 맛 좋은 막걸리에 한번 더 취하는 느낌이다.
- 03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에서 한껏 포즈를 취해본다.
- 04 평창 삼양목장의 이국적인 경치에 폭 빠진 이겨레 사원의 어머니와 동생



02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우리 가족 뒤에도 많은 사람이 줄을 섰고, 드디어 즐거운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을 할 줄 알았지만 제 입에는 너무 잘 맞는 맛집이어서 속초에 가면 꼭 찾는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배를 든든히 했으니 운동을 해야겠지요? 지난 여행 계획을 세운 제가 기특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가족은 예약해놓은 한화리조트 설악에 짐을 풀고 바로 설악 워터피아를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초여름 워터피아는 아직 진정한 여름이 오지 않아 슬라이드를 타기에는 조금 추웠지만 우리 가족은 슬라이드를 타겠다는 열정으로 추위와 싸우며 워터파크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설악워터파크의 진정한 묘미는 야간 수영입니다. 야간의 야외 수영장의 조명은 정말 아름다워서 분위기 있는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꼭 설악워터피아의 야간 야외 수영장에서 더 큰 사랑을 키우시길 추천 합니다. 야간 야외 수영장 이외에도 몸에 좋은 탕이 많이 있어서 모든 탕을 다 들어가

보며 가족 간의 사랑도 키우고 건강도 지키는 여행 코스가 되었습니다. 설악산의 시원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니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고 건강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우리 가족의 여행을 너무 도와주었고 밤하늘의 별이 쏟아질 정도로 많았습니다. 즐거운 워터파크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가족들과 리조트에서 간단히 맥주 한잔을 하며 그 동안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어느새 깊은 밤이 찾아 왔습니다.

부모님은 피곤하셨는지 눕자마자 잠이 드셨고 깊어가는 밤이 아쉬워 동생과 리조트의 야경 구경을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리조트에서 재즈를 연주 하고 있었고 너무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결혼하면 나중에 부인과 아이들과 꼭 다시 와야 겠다고 생각하며 여행 첫 날을 마무리 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온 후 설악산 등산을 위해 출발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도 일찍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설악산을 올라가기 위해 겨우 주차를 하고 비선대를 향하여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올라가면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조금 오르다보니 비선대가 보였고 바위에 쓰여 있는 글씨와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바람소리가 섞이니 몇 백 년 전에 사람들이 살던 모습이 상상 되기도 하고, 경치가 너무 좋아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라는 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비선대를 벗 삼아 우리 가족은 신선놀이를 하듯 막걸리와 도토리묵을 시켜 건배를 하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이번 여행의 목적인 화목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고 맛있는 막걸리를 마시니 한 번 더 취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평창 삼양목장을 잠시 들리 이국적인 느낌의 경치를 느낄 수 있었고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를 보며 우리 회사 생각도 하게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3



04

노후 준비, 연금저축으로 스마트하게!



지난해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해 국제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에서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0.4점으로 중하위권에 속했다. 조사항목 중 '소득보장' 영역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데에다, 개인이 모은 노후자금도 많지 않은 편이다. 이는 노후 준비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노후자금을 애써 모아놓아도 사업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으로 쓸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 탓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자 본인이 노후자금을 목돈으로 모아 관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노후에 다달이 돈을 지급해주는 '연금'이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국민연금을 위시한 공

적연금이고, 둘째는 회사가 부여하는 퇴직연금, 셋째는 개인이 알아서 추가적으로 저축하는 개인연금이다. 개인연금은 상품의 선택과 저축 금액의 결정까지 모두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개인연금은 크게 둘로 나뉘볼 수 있다. 하나는 매월 얼마씩 노후자금을 저축하는 '연금저축'이며, 다른 하나는 목돈이나 재산을 한 번에 쾌척해 이 돈을 일정 기간마다 조금씩 쪼개 받는 '즉시연금, 주택연금' 등이다. 소득이 없는 퇴직자이거나 5년 내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즉시연금이나 주택연금 등을 고려해볼직 하지만, 아직 현역이라면 월급의 일부를 조금씩 저축하는 '연금저축'을 활용하자.

연금저축은 5년 이상 저축하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즉, 노후 준비를 위한 장기 저축(투자)상품인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에게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²⁾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세테크 차원에서 연금저축에 가입해 있으나 꼬박꼬박 저축할 할 뿐 노후 준비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연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생활의 수준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생활비 대기에 급급한 노후를 보낼 수도, 여행, 취미생활 등을 즐기는 노후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연금저축을 관리하면 좋을까? 아래의 세 단계를 밟아 가면 비용과 시간을 들일 필요 없이 손쉽게 노후 준비를 해결할 수 있다.

1) 만 60세 이상(부부는 연장자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 합산)의 주택 보유자 가입 가능
2) 2013년 연말정산까지 소득공제 적용하였음

연금저축 관리 1 단계 연금저축 적립액 점검하기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노후를 위해 모으고 있는 금액이 적정한지 따져보는 것이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NPS내연금(csa.nps.or.kr)을 방문하여 <간단 재무설계>를 받아보자. 나이, 기대수명 등 기본 정보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준비 중인 노후자금을 입력하면, 내 노후자금이 충분할지 모자랄지, 모자르다면 얼마를 더 모아야 할지 알려준다. 국민연금의 경우 얼마를 받을지 잘 모른다면, 공인인증을 할 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해당 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이용이 편리하다. 노후준비를 위해 추가적으로 모아야 하는 액수가 없다면 좋겠지만, 더 모아야 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돈은 부담이 되지 않는 여유자금 선(월급의 5~10%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 이제껏 절약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 즉시연금이나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예금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얼마든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굳이 무리해 즉시연금 납입금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

연금저축 관리 2 단계 연금저축 유형 점검하기

두 번째는 적절한 연금저축 유형을 선택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흔히 '연금'이라고 하면 '(저축성)보험'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연금저축은 신탁(은행), 펀드(증권회사)로도 가입할 수 있다. 원금손실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연금저축신탁이 좋다. 만약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행'으로 가입하고 싶다면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자. 단, 내가 원하는 때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신탁이나 펀드와 달리, 연금저축보험은 반드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초반에 보험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다른 상품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가 3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수수료로 인해 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 관리 3 단계 연금저축 금융상품 고르기

마지막으로 실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각 유형별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수익률 등을 확인하고 싶으면 금융감독원 연금저축통합공시 사이트(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를 방문해보자. 각 연금저축 유형별로 분기별 수익률, 수수료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원래 자료를 그대로 신고 있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홈페이지(www.invedu.or.kr)의 <연금저축> 비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펀드의 경우 위험 성향 등 조건을 입력하면 수익률과 안정성 면에서 꾸준히 우수했던 펀드를 추천해준다. 또한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금감원 공시정보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우수 펀드의 순위를 매긴 정보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이미 연금저축을 활용하고 있고 해당 상품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계좌를 깨지만 않는다면 다른 펀드로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고 계좌 내에서도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 있으므로 상품이전이 용이하다. 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의 경우 계약이전제도를 통해 상품을 바꿀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자.

<사례 : 45세 회사원 A씨의 경우>



STEP 1. 노후저축금액 검토

NPS내연금 사이트에서 <간단 재무설계>를 활용한 결과, 노후준비 '부족' 판정을 받았으며 부족자금을 채우기 위해 20년간 월 30만 원씩 추가 저축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음

그러나 현재 자녀의 양육비, 주택담보대출 상환비 등으로 부족자금을 전액 저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부담이 되지 않는 월 10만 원씩 추가 저축하기로 결정함

STEP 2. 연금저축 유형 검토

은퇴까지 10여 년 넘게 남아있으므로 기대수익률이 예·적금보다 높고 장기적인 시장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기로 결정함

STEP 3. 연금저축 금융상품 검토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홈페이지에서, 위험성향은 공격투자형, 펀드 운용기간은 2년 이상인 연금저축펀드를 검색해 보고, 이를 참고로 하여 증권회사 등에서 연금저축펀드 가입 상담을 받은 후, 규모가 상당하고(50억 원 이상) 수익률이 꾸준히 좋았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

● 안산공장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강한빛 사원



하얀 석회층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터키의 파묵칼레

아버지의 환갑을 맞아 가족끼리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근 10년 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 떠난 여행지가 바로 터키입니다. 나라 전체가 유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터키의 3대 명소를 꼽자면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파묵칼레라고 합니다. 소금가루를 겹겹이 쌓아놓은 듯 하얀 석회층이 절벽 한 면을 빼곡히 채운 이곳이 바로 흡사 우리나라의 계단식 다랭이논을 닮은 파묵칼레입니다. 5박 7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여행이었고, 지금도 문득 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던 파묵칼레가 생각나곤 합니다.



‘함께하는 사랑밭’과 만드는 Happy Cooking

아이들과 함께 달콤한 케이크 · 쿠키 만들기

추운 겨울날, 구로구에 위치한 한 케이크 가게 문틈 사이로 달콤한 냄새가 새어나온다. 작년 11월 29일, 세플러코리아 AP(아시아퍼시픽) 소속 임직원 5명과 세플러코리아 임직원 3명 및 가족이 30여 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케이크와 쿠키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연말을 앞두고 함께 라는 것이 더욱 의미있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함께해서 더욱 달콤한 케이크 만들기

이날 ‘해피쿠킹’ 캠페인에는 세플러코리아 임직원들과 독산 지역아동센터 및 빛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함께했다. 두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방과후 활동을 돕고 있다. 어린이 3명과 직원 한 명으로 조를 만들어 케이크를 만들 준비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외국인 직원의 등장에 다소 놀라는 듯 하였지만 말은 안통해도 마음만은 통했던 것일까. 서툰 영어를 섞어가며 함께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직원들도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케이크 회전 틀을 돌리면서 케이크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아이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케이크를 만든다는 것에 한층 들뜬 눈치였다. 케이크 빵에 생크림을 덮고 과일, 초콜릿, 쿠키 등 다양한 장식을 올리고 나서야 뿌듯해 하는 얼굴을 감출 수 없었다. 고사리 같은 손에 생크림을 묻혀가며 서로의 케이크를 자랑하고 나섰다. 함께한 직원들도 숨겨둔 요리 실력을 뽐내며 멋진 케이크를 만들어 냈다. 특히 이날 요리전문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로 더욱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설렘이 가득한 다양한 모양의 쿠키

케이크가 완성되고 바로 쿠키를 만들 준비를 했다. 각 테이블에 놓인 밀가루 반죽에 모두가 손을 옮겨지며 반죽을 더욱 차지게 만들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고 있다.



말은 안통해도 마음을 나누며 함께 달콤한 케이크를 만들었다.



직원들은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세플러그룹 아시아퍼시픽소속 직원들은 이번 '해피쿠킹' 봉사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양한 모양의 쿠키가 신기했는지 아이들의 손이 바빠진다.



각 테이블에 놓인 밀가루 반죽에 모두가 손을 옮겨지며 반죽을 다듬는다.



케이크가 완성되는 모습에 아이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힘이 모자란 아이들을 도와 직원들이 두 팔 걷어 부치고 나섰다. 길게 늘어난 반죽을 도마 위에 올려 두고 밀대로 얇게 폈다. 아이들은 준비되어 있는 쿠키커터 모양에 관심이 쏠렸다. 사람 모양,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별 모양, 하트 모양, 나비 모양 등등. 자신이 만들고 싶은 모양의 쿠키커터를 먼저 하겠다고 야단이다.

반죽에 찍어 나오는 모양이 신기했는지 아이들의 손이 더욱 바빠졌다. 유산지를 깬 쿠키팬 위에 한판 가득 다양한 모양의 쿠키가 올려졌다. 180°C 오븐에 들어가 약 15분 동안 쿠키가 구워지는 동안에도 아이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 함께한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하다는 직원들도 아이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간 모양이다.

세플러코리아와 맞잡은 따뜻한 두 손

케이크와 쿠키가 포장되고서야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이날 세플러코리아는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장갑을 선물로 준비하였다. 세플러코리아와 맞잡은 손처럼 장갑은 아이들의 손에 딱 맞게 끼워졌다. 더욱이 뜻밖의 선물에 아이들은 기뻐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가한 세플러그룹 아시아퍼시픽소속 직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세플러코리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함께하는 사랑밭'도 세플러코리아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뜻을 더했다. 앞으로도 세플러코리아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끊임없이 전달할 예정이다.



Tip

함께하는 사랑밭의 '해피쿠킹' 캠페인은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만들고 체험함으로써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균형 잡힌 음식을 먹기 힘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영양가 있는 간식을 만들어 나누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이다. 홈페이지 : www.withgo.or.kr



세플러코리아와 맞잡은 손처럼 장갑은 아이들의 손에 딱 맞게 끼워졌다.



쿠키가 구워지는 동안에도 아이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

'완생(完生)'을 꿈꾸는 신입사원들을 소개합니다.

신입사원



안산공장 수급팀 통상지원파트
사원 김경영

앞으로 나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플러코리아의 가족이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올해에는 많은 분들을 만나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통상지원파트의 조화로운 새바람이 되는 것이 2015년을 맞이하는 저의 목표입니다.



안산공장 벨트&체인 드라이브시스템 BU엔지니어링
사원 이지철

앞으로 나는 주위환경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항상 베풀다는 자세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뒤처지지 않겠습니다. 세플러코리아가 같은 업계 선두주자가 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안산공장 벨트&체인 드라이브시스템 BU엔지니어링
대리 정용주

앞으로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플러코리아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뜻 깊은 회사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충실하여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주공장 휠베어링 세그먼트
사원 김동환

앞으로 나는 나의 분야에서 솔선수범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항상 열정적인 마음으로 회사의 비전을 이루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세플러코리아에 자부심을 갖고 회사 발전에 힘쓰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전주공장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사원 김원호

앞으로 나는 구르는 돌이 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듯이 멈추지 않고 발전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규정을 잘 지키며 늘 배우는 자세로 임했던 초심을 되찾는 세플러인이 되고 싶습니다.



전주공장 열처리 세그먼트
사원 권장호

앞으로 나는 열정을 쏟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새해에는 힘든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열정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회사와 내가 함께 발전하는 2015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사무소 법무팀
부장 소병용

앞으로 나는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계적인 기업인 세플러의 가족이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플러코리아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위상을 갖도록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덧붙여 새해에는 아이들과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접자재구매
대리 조남원

앞으로 나는 자재구매의 중심축인 세플러인이 되겠다.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배우며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임하는 자세로 2015년에는 세플러의 중심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접자재구매
대리 한상열

앞으로 나는 자부심을 가진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플러코리아의 가족이라는 긍지를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은 세플러인으로서 품은 자부심과 긍지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전주공장 볼베어링 세그먼트
사원 박성수

앞으로 나는 타에 모범이 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그러기 위해 2015년 새해에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른 동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하루하루 지날수록 발전하는 세플러인이 되고 싶습니다.



전주공장 열처리 세그먼트
사원 양선규

앞으로 나는 초심을 잃지 않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회사와 나를 위해 건강을 지키고, 세플러코리아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주공장 수급계획 및 물류 관리
대리 오항서

앞으로 나는 스마트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새해에는 몸도 마음도, 머리도 스마트해지겠습니다. 2015년은 체중 7kg 감량을 목표로 다이어트를 실시하여 가벼운 몸을 만들고, 영어 학원을 꾸준히 다녀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이번호에도 어김없이 18명의 새로운 얼굴이 세플러코리아의 한식구가 됐다. 신입사원이 라면 꼭 거쳐야 하는 '앞으로 나는 OOO한 세플러인이 되겠다'라는 포부와 함께 2015년 새해 다짐도 들어 봤다.

New employees



신입사원



전주공장 휠베어링 세그먼트
사원 이영록

앞으로 나는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지난 1년간의 배움을 바탕으로 삼아 현장에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새 해에는 제 한몫을 충분히 해내고 동료들에게 힘이 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전주공장 볼베어링 세그먼트
사원 이요한

앞으로 나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빨리 달려서 서두르다가 일찍 지치고 넘어지기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플러코리아의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주공장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사원 이현호

앞으로 나는 규정을 잘 준수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엄격한 규정준수로 최고의 품질을 완성해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불만 0건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주공장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사원 최근호

앞으로 나는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항상 자신감 있는 마음가짐으로 비록 지치거나 힘들 때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 현재의 목표뿐만 아닌 또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원공장 공정개발팀
대리 이기중

앞으로 나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새해에는 주어진 업무와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저의 2015년 키워드는 건강과 영어 공부, 독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해를 알차고 바쁘게 보내고 싶습니다.

2014년도 타운 홀 미팅 (Town Hall Meeting) 개최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사무소 컨벤션 홀에서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이 진행됐다. 이번 타운 홀 미팅은 2014년 한 해 동안 세플러그룹이 이룬 성과를 되돌아보고, 2015년 새로운 목표 및 경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세플러코리아 김재현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필두로, 취임 이후 처음 방한한 Mr. Klaus Rosenfeld 세플러 최고경영자(CEO)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회사의 현황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질의응답으로 타운 홀 미팅이 마무리됐다.

Mr. Rosenfeld는 1. 세플러 그룹 개관 2. 2014년도 주요 달성 현황 3. 2015년 주요 현안 및 목표까지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했다. 더불어 2015년 주요 우선순위 목표 10가지를 소개하며,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구했다. 이날 발표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교통수단과 에너지 산업 현황에 대한 부분에서는 최고경영자로서의 날카로운 진단을 읽을 수 있었다.

한편, 이날 타운 홀 미팅에는 세플러코리아 김재현 대표이사를 포함한 서울 사무소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기아차, 2014 국제 파워트레인 컨퍼런스(HKIPC) 참가



세플러는 지난 10월 28일~29일 양일간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에서 열린 '2014 현대·기아 국제 파워트레인 컨퍼런스'에 참가하였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진화에서 혁신으로: 미래 친환경차를 위한 파워트레인 기술'이라는 주제로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친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차세대 파워트레인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혁신 기술을 공유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이번 행사에는 세플러를 비롯해 보쉬, 컨티넨탈, 델파이, 덴소 등 세계적인 파워트레인 부문 업체들과 국내외 학계, 유관 학회 및 연구소 등에서 1,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가솔린, 디젤엔진 혁신기술, 연료 효율, 배기 후처리 기술, 신 변속기 기술, 환경차 혁신 기술 등 6개 분야 56편의 주제 발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세플러에서는 아시아퍼시픽 오토모티브부문 사장인 Mr. Zink, Matthias가 컨퍼런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변속기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조직활성화 교육 시행



2012년 하반기부터 세플러코리아의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를 위한 조직활성화 교육이 시작된 바 있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1단계 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2014년 10월 6일 pilot 차수를 시작으로 2015년 3월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2단계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직활성화 교육의 2단계인 이번 교육의 테마는 '창조적 실행'으로 1단계 '마인드 변화 과정'에 이어지는 과정이다. 2단계에서는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창조적 실행 및 소통, 그리고 신뢰의 문화를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일류기업 달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으며 4가지 중점 사항은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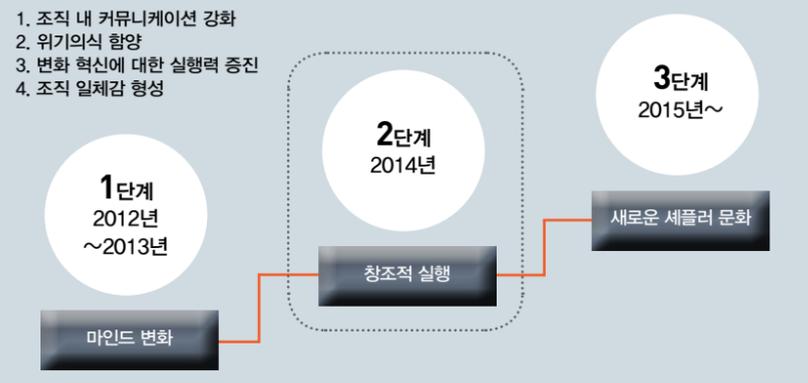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2단계 교육은 전문직과 일반직을 나누어 진행했던 1단계 교육과 다르게 전문직, 일반직이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참가자들 대부분이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편안하고 즐거운 교육 분위기 속에 금세 친해져 조별로 진행되는 과제들도 모두 능숙하게 해냈다. 임직원

들이 업무공간을 벗어나 기분전환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이다.

2단계 교육에는 사내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이 종료되고 난 뒤에도 진행되는 특별한 과정이 있다. '3-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과정은 각 개인별로 2명(참석한 교육차수 내 1명, 본인 부서 내 1명)의 3-네트워크 대상자를 제비뽑기로 선정해 조직 내 소통을 촉진하고 조직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그림 1>

1.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강화
2. 위기의식 함양
3. 변화 혁신에 대한 실행력 증진
4. 조직 일체감 형성



Schaeffler Korea News

서울 사무소 · KOTRA 채용박람회 참가



10월 28일~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 참가하였다. 코트라는 일반 구직인들에게 외국계 기업의 채용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박람회를 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낮지만 기술력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엄선했다고 한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세플러코리아를 비롯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총 96개사가 참여하였다.

서울 사무소 · 축구동호회 4/4분기 모임



11월 20일, 서울사무소 축구동호회의 14년도 4분기 모임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12명의 축구동호회 회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2시간 가량 운동을 즐긴 후, 저녁식사를 한 뒤 이날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서울 사무소 · 서울지역 연탄나눔봉사



11월 22일, 서울사무소 임직원 및 대학생봉사단 서울지역 단원들이 함께 연말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참가했다. 갑자기 내린 비로 힘들었지만 곳은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노원구 당고개역 근처의 독거노인 분들께 총 3,000장의 연탄을 전달하며 참가자 모두 구슬땀을 흘렸다.

서울사무소 · 영업관련 법무교육



12월 5일 오전, 영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 교육이 진행되었다. 독일 본사 법무팀의 홍무원 변호사가 그룹 계약 지침 및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거리상 참석이 힘든 사업장은 전화회의를 통해 참석하였다. 평소 담당자들이 영업간에 궁금했던 계약 방침과 법률 등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활발하게 진행되며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평이다.

서울사무소 · 2차 성희롱예방교육



12월 15일, 지난 7월에 실시된 서울사무소 성희롱예방교육에 불참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교육이 진행되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 임직원이 참여해야 하는 교육으로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에는 29명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서울 사무소 ·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
서울지역 활동



12월 20일, 대학생 봉사단 서울지역의 마지막 활동이 성모보호 작업장에서 진행되었다.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소원카드 작성, 성탄절 트리 꾸미기와 함께 봉사자들이 성탄절 산타 복장을 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 모두 연말에 뜻깊은 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어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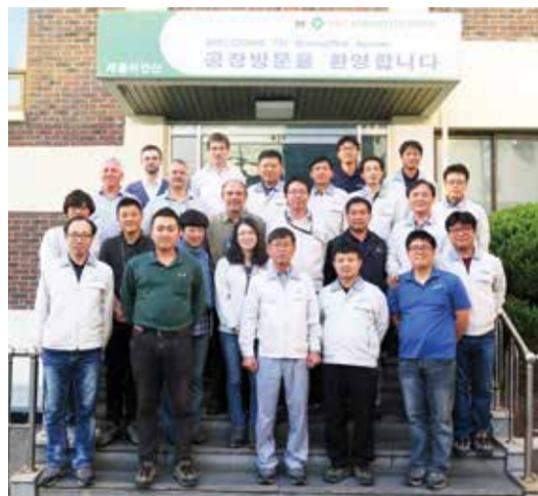
서울 사무소 · 독서통신교육 실시

학습하는 기업문화 조성 및 조직 구성원 간의 지식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3년 독서통신교육이 실시되었다. 교육일정은 12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약 2개월에 걸쳐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되며, 경영전략, 리더십, 팀워크 등 각 직급에 적합한 역량 개발을 위한 도서를 중심으로 임직원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여 진행된다.

서울 사무소 · 부서단위 배식봉사활동

서울 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하여 매월 부서 단위로 종로 노인복지관에서 꾸준히 배식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10월에는 산업기계 사업부 및 사시&약세서리 드라이브 영업, 11월에는 구매, 12월에는 사업기획 및 트랜스미션 영업 부서에서 배식봉사에 참가하였다.

안산 · MOVE 워크숍



11월 3일~7일, 엔진 시스템 소속의 독일 직원들이 방문하여 MOVE 리더십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리더십 워크숍은 MOVE 활동의 관리 및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번 워크숍은 엔진의 가치흐름도 설계(VSM)팀과 벨트&체인의 흐름생산(Flow production)

팀으로 구성해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2015년에 안산공장이 아시아 최고의 MOVE 공장이 되기 위한 의지도 다졌다.

안산 · 2014년 노사 워크숍



12월 5일~6일, 한화 리조트 설악에서 2014년도 노사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4년 실적 보고와 2015년 전망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지속성장을 위한 노사간 협력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안산 · 2014년 생산성 보고회



12월 31일, 세플러안산 임직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각 팀별로 14년도 실적 및 15년도 전망에 대한 발표의 시간을 가지는 생산성 보고회가 진행되었다. 보고회에 이어 한해를 마무리하는 안산공장의 종무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전주 · 전주공장 체육대회 및 가족 초청행사



11월 2일,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및 가족 초청행사를 개최하였다. 전주 비전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전주공장 협력업체 500여 명이 참가하였고, 우천이었지만 체육대회를 통해 단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전주 · 임직원 봉사활동



11월 8일, 공장운영실 직원 및 가족 7명이 임마뉴엘 동산에 방문해 대청소 및 천정 전구 교체를 진행했고, 12월 10일에는 음악동우회 4명이 소화진달래집에 방문, 음악 공연을 통해 연말 소외된 이웃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주 ·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전달식

12월 3일, 2014년도 장학금 전달 행사가 있었다. 전주공장에서는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어린이재단에 등록된 한부모 자녀 18명과 협력업체 자녀 5명에게 각 5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하여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였다.

전주 · 전주지역 연탄나눔봉사

12월 20일, 전주공장 업무지원팀에서는 소외된 계층을 위해 4,000장의 연탄을 후원하고 직접 연탄 배달봉사를 실시하였다. 임직원과 함께 연탄봉사에 참가한 대학생봉사단 전주지역 학생들도 추운 겨울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전주 · 11월 환경안전 Festival

11월 14일에 개최된 11월 환경안전 Festival에서는 9~10월 환경안전 실적을 보고 및 팀별 개선사례를 발표하여 환경안전 우수부서와 개선사례 발표팀에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창원 ·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 창원지역 활동

10월 12일, 대학생봉사단 창원지역 학생들은 창원에서 열린 경남마라톤 대회의 자원봉사자로 참가하여 경남장애인복지관 봉사자들과 함께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였다. 이날 참가한 10여명의 봉사단원들은 추운 날씨에 레이스를 마치고 복귀하는 경기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먹거리를 제공하였다.

창원 · 환경안전 보고회

12월 10일, 환경안전팀이 주관하는 환경안전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환경 안전에 대한 주요 이슈와 PU별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1PU 설비보전1팀은 '공실 내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보안을 통한 Non-Optimization 제거', 3PU 설비보전3팀은 '제조공정의 불합리 요소 개선을 통한 환경, 안전, 보건 및 생산능률 향상', 6PU 설비보전6팀은 '작업장 환경, 안전, 보건 개선으로 근무 환경 및 생산 능률 향상' 등을 각각의 개선 사례로 발표하였다.

창원 · 노동조합 노조간부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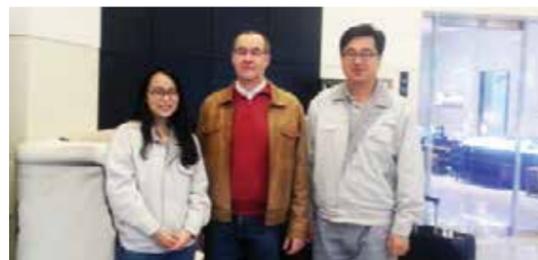
11월 21~22일, 지리산 한화콘도에서 창원공장 노동조합 노조간부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약 70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분임조별 토의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창원공장 이근삼 공장장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현재 창원공장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함께 노사 모두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의지를 밝혔다.

연구소 · 족구동우회 연말 결산 대회



11월 15일, 연구소 족구동우회(한울타리)는 창원3공장 운동장에서 연말결산 족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임직원들은 단합과 교류의 장을 통해 업무간에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추위도 날려버릴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연구소 · Mr. Lothar Hofmann 방문



11월 27일, 세플러 테크놀로지서서 재료 개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Mr. Lothar Hofmann이 연구소를 방문하였다. 연구소 임직원들은 그룹 연구소 재료 부문의 주요 이슈를 함께 논의하고, 세플러 그룹의 정책에 부합하는 한국 내 재료 연구 개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Schaeffler Hotline

서울사무소

2014. 09

Asia Pacific Finance
박현성 | 11일
장인 회갑

HR서비스지원
박은영 | 16일
친조부상

2014. 10

회계
민광운 | 5일
장모 회갑

벨트&체인 드라이브 시스템 BU 영업
김태철 | 7일
친조모상

산업기계 사업기획
임태홍 | 11일
장모 회갑

산업기계 해외 영업
위수지 | 18일
모친 회갑

직접자재구매
최중훈 | 18일
장인 회갑

2014. 11

남부물류센터
김동균 | 3일
부친상

정보시스템
정승균 | 6일
조부상

사업관리
김상민 | 15일
본인 결혼

산업기계 중부 직남 영업
김성진 | 29일
본인 결혼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영업
이명진 | 29일
본인 결혼

2014. 12

Asia Pacific Finance
박현성 | 1일
자녀 출산



안산공장

2014. 10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안산
장해수 | 18일
본인 결혼

엔진부품 세그먼트
백용상 | 24일
조모상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황상연 | 26일
부친상

2014. 11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안산
김규태 | 3일
모친 회갑

설비보전
김상중 | 14일
조모상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안산
강한빛 | 27일
부친 회갑

2014. 12

공정기술
이재상 | 15일
장모 회갑

창원공장

2014. 10

중형 볼베어링 세그먼트
이홍섭 | 18일
본인 결혼

생산계획 베어링부품 MU
배명환 | 18일
본인 결혼

소형 볼베어링 세그먼트
유재홍 | 19일
모친상

테이퍼롤러생산 세그먼트
김명주 | 19일
본인 결혼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김영환 | 20일
모친 회갑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정상훈 | 20일
장인 회갑

볼베어링 열처리 세그먼트
황태경 | 26일
부친 회갑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최창수 | 28일
장모상

선삭 세그먼트
고경찬 | 30일
모친 회갑

2014. 11

사업관리 창원
정호상 | 3일
모친 회갑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이환석 | 5일
부친상

볼베어링 열처리 세그먼트
안상연 | 6일
모친상

소형 볼베어링 세그먼트
노치현 | 10일
모친상

볼베어링 열처리 세그먼트
노치문 | 10일
모친상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노성욱 | 10일
조모상

품질보증팀 창원
이강석 | 13일
장모상

H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김병화 | 14일
장모 회갑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김성원 | 15일
장인 회갑

사업관리 창원
정호상 | 18일
자녀 출산

중형 볼베어링 세그먼트
심재범 | 20일
모친 회갑

테이퍼롤러생산 세그먼트
배창욱 | 26일
장모 회갑

치공구서비스 테이퍼베어링 MU
구성서 | 29일
모친 회갑

선삭 세그먼트
유광철 | 30일
모친상

품질보증팀 창원
정기윤 | 30일
본인 결혼

연구소

2014. 10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엔지니어링
김승준 | 16일
자녀 출산

제품기술팀
최재원 | 17일
자녀 출산

샤시&악세서리 드라이브 BU 엔지니어링
손정형 | 19일
본인 결혼

제품기술팀
구경민 | 28일
자녀 출산

2014. 11

제품기술팀
차철환 | 11일
부친상

제품기술팀
안희훈 | 15일
부친 회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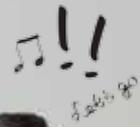
세플러 코리아 대학생 봉사단 EVERGREEN 3기 모집 안내

세플러코리아 대학생 봉사단 EVERGREEN은
늘 푸른 나무라는 뜻의 '상록수'처럼 사회와 늘 푸르게
함께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플러코리아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과 더불어
외국계 기업의 취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의 진로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플러코리아에서 후원하고 있는 재단과 연계하여
대학생 봉사단 EVERGREEN 3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 V E R G R E E N



모집대상

지원자격

서울·경기, 전주, 창원에서 활동 가능한 대학(교) 2~4학년 대상
활동에 정기적으로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자
봉사활동에 관심 있고, 열정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자

모집 지역	모집 인원
서울·경기	30명
전주	10명
창원	10명

모집 일정

지원서 접수는 3월부터 시작되며, 3월 말에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세 모집일정은 오는 3월, 사내 인트라넷 및 세플러코리아 홈페이지(www.schaeffler.kr)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활동 일정

4~12월(9개월), 매월 1~2회 활동 * 봉사활동 일정은 지역별로 협의하여 진행
벽화봉사,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 장애아동 나들이 도우미 등 자세한 활동 계획은 추후 공지

봉사단원 혜택

- 세플러코리아 봉사단 활동 인증서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VMS)
- 주말워크캠프 참가 • 활동 우수자는 입사 지원 시 우대

문의 커뮤니케이션&마케팅 이성규 : leesgy@schaeffler.com

